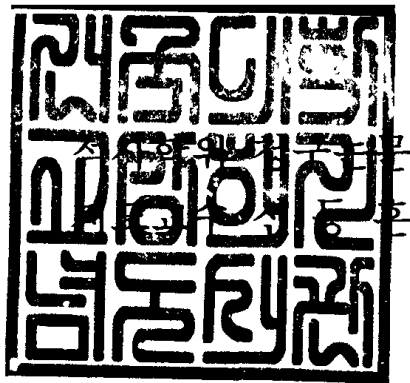




무속신화의 문학적 재창조 방안 연구

- 창세신화, 바리공주,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urse of Literary Re-creation
in Shamanism Mythology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전공

오 정 미

647084

무속신화의 문학적 재창조 방안 연구

- 창세신화, 바리공주,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urse of Literary Re-creation
in Shamanism Mythology

지도교수 신 동 훈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11월 일

전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전공

오 정 미

오정미의
문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2001년 11월 일

전국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1. 서 론	1
1.1 연구 목적	1
1.2 연구사	4
1.3 연구 방법	7
2. 무속신화의 현대적 가치	11
2.1 무속신화의 정체성	11
2.2 현대적 가치	13
3. 문학적 재창조의 방향 찾기	18
3.1 재창조 작업의 현황	18
3.2 문학적 재창조의 논리	22
- 그리스·로마 신화와의 비교를 통하여 -	
4. 재창조 작업의 실제	27
4.1 신화 다시 쓰기, 그 기본 기획	27
4.2 재창조 작업의 몇 가지 국면	31
4.2.1 창세신화: 신과 인간의 질서와 체계	31
4.2.2 바리공주 서사적 구성의 논리	51
4.2.3 세경풀이: 캐릭터의 형상화 방향	71
5. 결 론	95
<참고문헌>	98
<영문초록>	102

1. 서론

1.1 연구목적

인류는 각각의 민족의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신화’를 갖고 있다. 그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진 신화는 민족의 특수한 성격과 함께 세계 보편의 공통된 가치관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래서 신화는 진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외경해야 하는 것,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어지며, 또한 문화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¹⁾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신화가 존재한다. 우리의 신화로는 구전신화와 문헌신화가 존재해왔다. 두 계통의 신화 모두가 외경의 대상이기는 했으나 이중 관심의 대상은 문헌신화의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상대적으로 구전신화의 경우는 체계적인 연구가 많지 않았고 일반인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단군신화>, <주몽신화>와 같은 건국신화들이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반면 무속 신화는 주변에 머물고 있다.

구전신화의 경우는 주로 무속신화로 전승된 것으로서 굿이라는 제의를 통해 우주, 생사, 가족, 사랑 등이 서사 내용을 이룬다. 이들은 제의의 현장에서 채록된 것인 만큼 살아 있는 신화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줄 뿐 아니라, 구비전승 과정에 걸맞게 오랜 역사와 문화의 적층을 담고 있다.²⁾ 그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신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에 실재하는 가치체계를 형상화하였고 희망까지도 그려져 있다.

실상 신화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신화는 건국신화보다는 굿 속에서 구송되는 무속신화가 더욱 가깝다. 건국신화가 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국가의 권위를 잡으려는 정치적 의도와 관련되어 있다면 무속신화는 인간행위의 전범을 제시하면서 인생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³⁾ 진정한 신화로 수용하는데

1) B 밀라노우스키, 『원시신화론』, 민속원, 1996, p.32.

2) 강동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3) 미르세아 엘리아드, 『신화와 현실』, 성균관대출판부, 1985.

조금의 손색도 없다.

‘본풀이’라고도 하는 무속신화는 무속 신의 내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악기 반주에 맞추어서 많은 사람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준다는 점에서는 구비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⁴⁾ 본풀이라는 말은 ‘본’과 ‘풀이’의 복합명사로서 ‘본’은 ‘신의 내력’을 의미하고 ‘풀이’는 ‘풀다’의 명사 전성으로 ‘해설·해명·해석’ 등의 뜻을 지닌다.⁵⁾ 즉 본풀이는 신의 출생에서부터 역경의 과정을 극복하고 좌정하기까지를 전기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점이 우리 무속신화의 특성으로, 평범한 인간의 존재가 고난을 극복하고 신으로까지 좌정되는 일대기적인 삶의 모습이다. 그 속에 민족의 삶이 보편적·상징적으로 응축되어 있다 그것은 신화가 가시적인 세계의 배후를 설명하는 메타포로 사실과 깊은 연관을 지닌다.⁶⁾

서사문학의 원천인 무속신화는 신화로서의 보편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정서와 세계관을 그대로 형상화하고 있는 의의를 지닌다 그것은 많은 서사문학의 원천이 되어 중심화소로 차용되기도 했고 그만큼 본풀이 속의 주인공들이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천상의 존재로 되기까지의 경험담들은 문학적인 가치가 증명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신화를 접하는 우리 민족들의 경험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주인공이 신으로 좌정할 때 사람들은 삶의 희망을 얻는 정신적 치료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무속신화는 이러한 신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온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문학적·문화적인 가치가 ‘굿’이라는 형식의 틀 속에 갇혀 그 속에 함축하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도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굿이 허락된 공간은 도시에서 쉽게 접할 수 없어서 일반인에게 굿은 과거의 유습 정도로 인식된 채, 잊혀져 가는 문화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속신화는 굿이란 종교적 제의의 틀을 벗어난 문학적인 재창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속신화가 그 동안 서사문학의 원천이 된 것으로 충분히 무속신화의 문학성은 증명된 것이다. 이러한 무속신화의 문학성은 일반인들이 전설과 민담에서 흥미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친근한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무속신화가 단순한 옛 이야기의

4) 김열규 외, 『한국의 무속문화』, 박이정, 1991, p 100.

5)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p 17

6) 조셉 캠벨·빌 모이어스, 『신화의 힘』, 고려원, 1988, p.23.

차원을 넘어 신화로서의 가치를 함께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속신화의 문학적 재창조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린이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를 대상으로 한 문학물은 쉽게 무속신화를 접할 수 있게 하여 신화가 주는 세계관과 민족적 가치관을 전달할 것이다

신화가 보편적인 세계관을 갖고 문학적으로 성공한 사례로는 그리스·로마신화가 있다

그리스·로마신화는 오늘날에도 문학과 문화의 전반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있다 그리스·로마 신들은 신전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닌 문화로까지 발전하여 전 세계인들의 내면에 자리잡았다.

이러한 그리스·로마신화의 사례는 우리의 무속신화가 나아갈 방향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무속신화도 그리스·로마신화와 같은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하는 상징과 비밀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그리스·로마 신화가 철학자, 예술가 등에 의해 변형된 데 비하여, 무속신화는 제의 현장에서 생성되고 전승되어서 신화의 원형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특성까지 지니고 있다. 이는 무속신화의 문학적 재창조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무속신화는 몇몇의 연구자들에게만 신화적인 가치가 인정되고 있을 뿐 대중들에게는 먼 거리에 서있다 대중들은 무속신화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존재를 아는 사람들 중에도 신화이전에 ‘굿’이란 제의를 먼저 생각할 뿐이다 물론, 굿과 무속신화는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굿이 종교적 차원의 제의라면 그 속에서 구송되는 무속신화는 인간의 보편적 삶을 제시해주는 이야기로서 그 정체성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무속신화를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한 모색이 연구자들의 하나의 과제가 된 것이다. 서구의 신들을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대인에게 우리의 신화를 되찾도록 하는 작업은 민족의 뿌리를 찾아주는 작업이며 정체성을 되찾게 하는 것으로 의미를 지닌다.

사람들에게 무속신화를 신성성과 더불어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신화로 거듭 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우리의 신화를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는 문학으로 만드는 작업방안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제우스와 헤라, 데미테르 등을 이야기하듯이 천지왕과 바리공주, 자청비 등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속신화를 굿이란 제의에서 구송되는 노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신화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무속신화만의 고유한 특성을 그대로 지닌 문학적인 재창조물이 필요한 것이다. 더 이상은 종교적 제의로서의 무속신화가 아니고, 대신 무속신화만의 민족의 특수한 가치관과 세계의 보편적 세계관을 함께 지닌 신화를 만들기 위함이다. 예컨대 민족의 특수한 가치관은 무속신화의 주인공들이 과업을 해결해 나가는 서사 속에서 그대로 투영될 것이다. 무속신화에서 보여주는 우리 민족만의 문화와 가치관 등은 세계화로 인하여 정체성을 잃고 흔들리는 현대인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지표로 큰 힘이 될 것이다. 이점은 다른 신화와의 차별성이 부각되는 우리 무속신화만의 특수한 가치관으로 무속신화의 문학적 재창조로서에 방향이 되며 ‘우리 신화 만들기’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세계의 보편적 세계관도 형상화한 무속신화는 그리스신화와 같이 국경을 넘어서 세계인들에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표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선 그 동안의 채록된 무속신화에서 텍스트를 선별하고 재구성하여 무속신화의 정체성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창세신화>, <바리공주>,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무속신화의 문학적 재창조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1.2 연구사

본 논문은 무속신화의 문학적 재창조 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우리의 무속신화를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보편적인 신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무속신화의 연구사를 살펴는데 있어 무속신화 일반에 관한 연구사를 개관한 후 최근에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재창조 방안에 대한 연구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무속신화 중에 이 글의 논의 대상인 <창세신화>와 <바리공주>, <세경본풀이>을 중심 대상으로 삼아 문학적 연구 경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사무가 자료는 손진태가 함흥·홍원·동래 등에서 황천각시·희생곡·창세가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선신가유편』(1930)에 수록하여 무가자료를 소개한 것

이 본격적인 출발이었다. 그 후 일제 식민지 시대의 적송지성·추엽옹의 『조선무속의 연구』(1937)와 김태곤의 『한국무가집1-4』(1971~1980), 현용준의 『제주도 무속사자료사전』(1980), 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1990)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성과를 일궜다. 이러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1980년대 들어서 서사무가가 신화적인 입장에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연구 대상인 <창세신화>는 최초로 임석재⁷⁾가 “우리나라의 천지개벽신화”에서 연구를 했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1970년대에서 1980년대 들어 서대석⁸⁾이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1980)에서 새로 여덟 개의 자료를 소개한 후 천지개벽, 일월조정, 인간창조, 주도권 경쟁, 시조의 출생과정 등 다섯 개의 신화소로 나누어 각 편의 변모 양상을 살폈다. 그 후 김현선⁹⁾의 『한국의 창세신화』를 통하여 본토지역과 제주도 지역으로 창세신화를 나누어 각 신화소의 전승과 변이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 해석까지 논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박종성¹⁰⁾의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는 최근의 연구 중의 하나로 창세신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했다.

두 번째, <바리공주>는 서사무가 연구 중에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무속신화로 민속학적, 문학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현재 현대적 재창조물과 그에 대한 몇몇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일한 무속신화이다. 김태곤¹¹⁾이 <바리공주>를 <황천무가>로 규정지은 후 본격적으로 <바리공주>가 영웅의 일생을 구조로 한 서사무가임을 논한 서대석¹²⁾의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홍태한¹³⁾이 굿의 현장에서 채록한 <바리공주>를 대상으로 구송되는 현장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다.

세 번째, <세경본풀이>는 최근에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서사무가로 최근에 신화론적인 견지로 본 연구와 ‘자청비’ 여성영웅의 인물로 본 연구들이 이루어졌

7) 임석재, 「우리나라의 천지개벽 신화」, 『경학 김영돈박사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77.

8)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 변이」, 『구비문학』 4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어문연구실, 1980.

9) 김현선, 『한국의 창세 신화』, 길벗, 1994.

10) 박종성, 『한국창세서사시연구』, 태학사, 1999.

11) 김태곤, 『황천무가연구』, 창우사, 1966.

12) 서대석, 「바리공주의 연구」, 『한국 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13)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민속원, 1998.

졌다 신화적인 위치로 본 연구로는 김화경¹⁴⁾의 세경본풀이에 대한 「세경본풀이의 신화학적 고찰」과 이수자¹⁵⁾의 신으로서 좌정된 역할에 따른 농경기원신화로서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세경본풀이」에 '자청비'를 신으로서가 아닌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행동을 주목한 논의에는 서경립¹⁶⁾, 좌혜경¹⁷⁾, 고은지¹⁸⁾, 임명숙¹⁹⁾ 등의 연구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그 동안 무속신화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자들이 자료를 중심으로 여러 각도에서 텍스트에 충실한 논의를 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근래에 들어 무속신화의 현대적 재창조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무속신화와 같은 구전서사에 해당하는 구비설화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전래동화로 재창조된 경우가 많다 구비설화처럼 무속신화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화작업이 문학적인 재창조의 출발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특히, 가장 널리 알려진 무속신화인 <바리공주>가 활발하게 재창조되어 왔다. 이와 함께 일반인에게 우리의 무속신화를 소개하고 있는 문학적 재창조물을 대상으로 하여 재창조 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우선, 박현숙²⁰⁾이 <바리공주>의 예술적 가치와 아동교육과 관련하여 전래동화로 재창조된 사례를 연구하고 무속신화의 현대적 재창조 가능성을 살렸다. 바리공주의 텍스트 원형을 왜곡하거나 신화로서의 교육적 가치를 전달하고 있지 못한 재창조물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내면적 주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을 하여 재창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바리공주>를 효에만 국한한 주

14) 김화경, 「세경본풀이의 신화학적 고찰」, 『한국학보』 28집, 1982

15)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논집』 11집, 1990

———, 「백중의 기원과 성격」,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5집, 한국민속학회, 1993

16) 서경립, 「제주 신화와 여성의 위상: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제주대법과정책』 4집,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1998.

17) 좌혜경, 「자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한국민속학』 30집, 한국민속학회, 1998.

18)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 구성의 특질」, 『한국민속학』 31집, 한국민속학회, 1999

19) 임명숙, 「페미니즘 시각으로 본 세경본풀이 연구」, 『돈암어문학』 13집, 돈암어문학회, 2000

20) 박현숙, 「무속신화 <바리공주>의 재창조에 관한 연구. 구비문학을 통한 아동교육과 관련하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제로 보는 시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 무속신화의 올바른 해석과도 연결된다. 한편 전영숙²¹⁾은 “인물 분석을 통한 <바리공주>의 재창조 방향 연구”를 통하여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창조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박현숙의 연구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기존 동화 작업을 분석하였다면, 전영숙은 대상이 청소년으로 확장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획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바리공주를 성장소설로 구성하고 무속신화가 구비문학이라는 특징을 살려 음성을 통해 이야기한 방안은 무속신화의 고유한 특성을 일반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방안이 돋보인다.

재창조 방안에 관한 위의 두 연구는 무속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신화로서 일반인에게 기피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통적인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무속신화 <바리공주>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바리공주>의 교육적 활용은 무속신화가 지닌 신화로서의 가치의 반영인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무속신화가 문학적 재창조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바리공주>라는 작품에 치우친 점이 눈에 띈다. <바리공주>가 가장 많은 문학적 재창조가 이루어진 무속신화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폭넓은 무속신화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독자의 대상에 있어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에 그치지 않고 일반 성인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무속신화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철학적 사상들이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화의 가치는 모든 독자에게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바리공주> 외에 <창세신화>와 <세경본풀이> 두 편을 추가하여 다양한 각도의 논의를 통해 우리 민족의 특수한 가치관과 함께 세계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세계관을 지향할 것이다. 아울러 독자의 대상을 아동층을 넘어 청소년은 물론이요, 성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독자를 상대로 한 보편적 재창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1) 전영숙, 「인물 분석을 통한 <바리공주>의 재창조 방향 연구」, 『겨레어문학』 27집, 겨레어문학회, 2001.

1.3 연구 방법

무속은 주술성을 지닌 종교적인 차원의 제의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본풀이를 한국의 가려진 신화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신들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계관이 반영된 무속신화를 순수한 신화로 바라봄으로써 현대사회에 무속신화의 실추된 신성성을 되찾고자 하는 의도이다

우선 무속신화는 지역에 따라 이본들이 분포되어 있지만, 기존에 채록된 무속신화에서 공통화소를 중심으로 삼아 지역별 이본의 특성에 따라 문학적 의미를 해명하여 본래적 의미를 지니는 온전한 신화의 모습을 재구해 나가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그렇게 본령을 드러낸 신화 속에서 현대적인 의미를 찾아보고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현대적 재창조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전제된 논의로서 한국의 무속신화가 재창조 대상으로 적절한 산물인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윤리적 가치관이 형상화된 신화적 가치와 문학적 감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그 방향성을 확인해본다

3장에서는 문학적인 재창조의 방향에 대한 일반적·이론적 차원의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먼저 현재까지 무속신화가 어떻게 재창조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핀 다음에 문학적 재창조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대중성을 인정받아 소설, 시, 조각 등의 문학적·예술적 재창조의 한 전범적 사례가 된 그리스·로마신화와 연관한 논의를 통해 무속신화가 대중에게 다가설 수 있는 보편적 신화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려 한다.

이어 4장은 재창조 작업의 실제에 들어가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구체적 검토대상 자료로서 세 편의 무속신화를 선별하였다. 현대적 재창조 방향에 화두를 던질 수 있는 무속신화들로 <창세신화>, <바리공주>, <세경본풀이>가 그것이다 이 세 편의 무속신화를 어린이용 동화로 기획·출간한 <한겨레 옛이야기> 시리즈²²⁾와 비교·분석하여 구체적인 재창조의 양상을 점검하고 대안을 통해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실재하는 재창조물 속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봄으로써 다른 무속신화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재창조 방향을 모색해보

22) 신동훈·정출현 기획·구성, <한겨레 옛 이야기>, 한겨레신문사, 1999
<한겨레 옛 이야기>시리즈는 우리의 무속신화를 어린이 대상으로 한 동화이다

들의 이야기란 점과 전 지역에 분포된 이본들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 편의 무속신화는 좌정된 신들의 위치와 역할이 각각 다르고 인간들에게 던지는 문제와 해답도 각각이 상이하다 이러한 다른 특성에 주목하여 재창조 논의대상으로 <창세신화>, <바리공주>, <세경본풀이>를 선정한 것이다

우선, 신화는 인간과 신의 관계를 먼저 상정해 둘 필요가 있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모든 신화의 출발이 되는 가치관으로 그 관계성에 따라 신화가 인간들에게 주는 가치관과 윤리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신화가 전개되는 시공간체계의 설정, 즉 천상계와 지상계가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는 다른 무속신화의 서사에 바탕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와 맨 처음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풀이한 <창세신화>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몽고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전역에 분포된 신화인 <창세신화>는 신화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치체계들을 설정해준다 여기서는 내륙지역과 제주도 지역을 통합하여 <창세신화>연구를 하고자 한다 특히, 시공간체계의 설정 문제에 있어 신들의 세계와 인간들의 세계가 어떠한 형태로 공존하는지와 신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생활 바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재창조 방향의 첫 번째 과제가 시공간체계와 신과 인간의 관계 설정문제인 것이다.

둘째, <바리공주>는 주인공 바리공주가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고난을 극복하고 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무속신화이다. 현재에도 출판, 연극, 영화 등에서 현대적으로 재창조가 가장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무속신화이기도 하다 이러한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효를 바탕으로 한 <바리공주>가 보편적인 가치관 외에도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바리공주의 서사내용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입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바리공주의 구약여행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과업 속에서 만나는 인물들은 일상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만남들로 여러 갈래의 서사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바리공주>에서는 서사구조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서사의 재구성 방향을 잡아 보고자 한다.

셋째, 서구의 신들은 그 신직보다도 그 신의 성격이 생동감있게 형상화되어 있어 현대에까지도 그 이미지가 재창조의 원천이 되고 있다. 현대에는 캐릭터 산업이 번성할 만큼 그 중요성은 확인되고 있었다. 우리의 무속신화에서도 무속신들을 사람들에게 살아 존재하는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의 성격은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그리스로마 신화의 신들처럼 강한 모습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무속신들에게도 저마다의 성격이 있고 그 모습은 신직과도 연결된다 그중 다른 무속신화의 어떤 신보다도 인물의 성격이 강조되는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를 이와 관련된 논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자청비’는 당시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강요 받는 여성의 모습이 아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꿈꾸는 씩씩하고 용기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어 인물의 성격이 신화전반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사회적 또는 성적인 부분의 제약을 뛰어넘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적극적이고 주체적 성격의 신이다 같은 여성신인 바리공주와 당금애기 등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녀의 성격이 <세경본풀이>의 서사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청비의 캐릭터 형상화 방향에 대하여 주목하여 재창조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2. 무속신화의 현대적 가치

2.1 무속신화의 정체성

무속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에게 종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사람들은 그에 대한 믿음으로 위로와 치료 효과 등을 구할 수 있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었다.

무속 제의에서 구송되는 무가는 인간과 신을 위한 매개적인 노래이고 그 내용은 무속신화가 된다 신을 오도록 하는 청배, 신을 돌아가게 하는 환위 또는 퇴송, 인간에게 복을 비는 기복과 재해를 막아달라는 방재의 무가가 있다 또한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찬양하는 찬신과 송덕의 무가도 있다²³⁾ 모두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짓는 제의 절차로 신들의 이야기가 된다. 즉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한 신화인 것이다

먼저 무속신화에는 세계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세계관이 내재해 있다 곧 어떻게 천지가 열리고 산과 강이 생겨났는가, 나라와 마을은 누가 이룩했는가, 농사법과 곡물, 고기잡이, 요리, 혼인 등은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는가와 같은 세계의 신화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물음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은 문화권에 따라 내용적 차이를 보이지만, 해답을 추구해 가는 구조에서 세계의 신화는 놀라운 유사성을 보여준다 구조인류학자인 레비 스트로스는 이러한 신화의 보편성이 인간의 ‘이원대립적인’ 정신구조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았다²⁴⁾ 그러한 특성이 우리의 신화에도 반영되었다 예를 들면, <바리공주>가 제시하는 도덕적 가치관들 중에 구약행위가 부모를 살리기 위한 효행의 행위로서 고난을 감수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우리 민족뿐 아니라 세계의 사람들은 바리공주의 효행을 신화가 제시해주는 도덕적인 삶으로 수용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삼는다. 또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가 사회적·생물학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사랑을 쟁취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마음속에 숨겨둔 카타르시스를

23) 서대석, 앞의 논문, p 84.

24) 강동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p 84

느끼게 된다. 현실에서 자신들의 감정을 속세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없는 한계를 자청비가 대신 극복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청비의 대범하고 용기있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위안이 된다. 즉 삶 속에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문제를 무속신화의 신이 대신 풀어주고 극복해주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세계관과 함께 우리 민족만의 특수한 세계관도 담겨 있다 특히, 우리 민족만의 특수한 세계관은 무속신화에서 본풀이이라는 형태를 갖도록 했다 본풀이는 평범한 인간이 고난을 극복하고 주어진 과업을 해결한 후 신으로 좌정되는 것을 이야기 한 것이다 서구의 신들이 처음부터 신의 존재로 인간과 분리된 존재였다면 무속의 신들은 신이면서 인간의 모습을 지닌 양면적 존재가 된다 신화가 도덕적인 가치나 사회적인 질서나 주술적인 신앙의 회고적인 전형을 제공하고 있는 점²⁵⁾점에서 볼 때 본풀이는 그러한 가치체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즉 무속신화의 정체성은 본풀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무속신화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관장하게 되는 신으로 좌정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일련의 상층적 서사라는 점이다. 처음부터 신이한 힘을 가진 신으로 태어나지 않고 현실 속에 있을법한 고난을 극복한 후 신으로 좌정받게 된다. 따라서 무속 신들은 인간의 삶 속에 내재해 있는 모순과 부조리를 누구보다도 더욱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 해결방법도 잘 알고 있다 인간의 삶과 죽음, 만남과 헤어짐, 고난과 행복, 갈등과 화합 등 인류의 보편적인 삶의 형태가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과 인간의 관계가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로 연결된 것이 우리의 무속신화이다 즉 고난을 극복한 인간이 신으로 좌정되는 본풀이는 우리의 신과 인간의 관계를 형상화 한 것이다.

무속신들은 인간과 수직적이지 않고 동시대에 삶을 함께 공유해나가는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신이 인간의 세상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인간도 신의 세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물론, 신이 인간보다 신성한 능력을 지닌 존재이기는 하나 그것은 인간의 삶을 관장하기 위한 능력일 뿐이지 인간보다 높은 신분에 있는 존재는 아니다. 우리 무속신화의 특수한 세계관이고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바리공주>와 비슷한 서사구조를 갖춘 신화로 만주족의 <니산샤먼>²⁶⁾이 있다.

25) 대립태양, 『신화학입문』, 새문사, 1996, p 51

26) <바리공주>가 버림받은 딸이 부모를 살리기 위해 구약여행을 떠나는 서사구조

그러나 근본적으로 두 신화를 듣는 청중들의 태도는 다르다 <바리공주>에서 바리공주의 의지적 인간의 희생적 모습을 보고 같은 인간으로서 연민의 정을 느끼고 감동을 받는다면, <니산샤면>에서는 니산의 위력에 감탄하고 두려워할 뿐 인간적 동질감을 느끼지는 않는다²⁷⁾ 이것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어떠한 관계로 보는가에 따라 비슷한 서사구조에서 다른 주제가 형상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무속신화인 <바리공주>는 신의 모습이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고난을 극복하고 신이 되었기 때문에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신이 된다. 반면에 중국의 신과 인간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력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풀이 형식은 신과 인간을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수평적 관계로 연결해주고 있다

이처럼 무속신화는 다른 신화와 마찬가지로 삶의 가치관을 정립해주고 삶의 방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화가 형상화하는 우주관, 세계관 등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신화로서 서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삶의 양상과 가치관, 희망 등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무속신화의 정체성은 이러한 민족의 특수성과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의 보편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2.2 현대적 가치

신화는 항상 실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성한 이야기’로서, ‘진정한 역사’로서 간주되고 있다고 한다.²⁸⁾ 그러나 오늘날은 신화가 다른 문학작품처럼 상상으로 이루어진 허구의 산물로 취급받고 있다 현대인들은 과거의 사람들처럼 절대적으로 신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삶의 지침서와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고 <니산샤면>은 늙은 어머니가 젊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구약여행을 떠나는 서사구조이다

<바리공주>와 <니산샤면>은 여성이 주인공이 되어 저승세계를 여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는 공통적인 서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인공 바리공주가 한 나라의 공주로 사람의 존재라면 니산은 광대한 신통력을 지닌 샤면의 존재이다.

27) 서대석, 「한국 신화와 만주족 신화의 비교연구」, 『고전문학연구』 7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2.

28) 신웅철, 「M. 엘리아데의 신화 연구」, 『송실대논문집』 16집, 1998.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들어 신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다 신화에 관련된 서적이 늘어나고 문화·예술의 창작물의 소재로 종종 이용되고 있다 세계가 경제·사회·문화 등에서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결과이다 사람들은 신화의 실재성을 부정하면서도 내면의 무의식 속에는 신화를 통해 진실한 삶의 답안이 존재하리라는 기대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점은 신화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우리만의 신화를 찾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속신화는 몇몇 학자들과 무속과 관련된 종사자들을 제외하고는 관심 밖의 신화가 되었다 무속을 단순한 미신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에게 굿이란 제의 속에서 무당들이 부르는 노래를 무속신화라고 정의 내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사람들이 굿을 원시 종교적 차원에서 인식을 할 뿐 우리의 전통문화의 하나로 수용하는 열린 사고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 신화의 발원은 무속신화이다. 우리 나라의 단군, 주몽과 같은 건국신화는 무속적인 제전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무속신화는 굿이라는 제전에서 사람들의 기도를 신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종의 사제자인 무당이 신을 위하여 본풀이를 하는데 그 내용이 신들의 이야기, 즉 신화인 것이다 이때 강령하는 신과 사제자인 무당과 기원하는 일반인은 모두가 합일이 되어 주술적인 힘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제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무속신화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성한 대상이 된다 무속신화가 순수한 종교적 제의에서 생성되고 전승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신성성은 믿음을 바탕으로 생성된다 특히, 본풀이에서 주인공이 신으로 좌정되기까지의 고난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고난으로, 이때 흘리는 하소연과 뉘드리와 눈물은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일으키게 되어 육체적·정신적인 치료의 효과를 얻게 된다. 세계를 인식하면서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강요되지 않은 신화의 힘에서 나온 신성성의 발현이다 즉 무속신화의 신성성은 포장된 신성성이 아닌 것이다. 사람들은 무속 신들의 절대적이고 위력적인 힘에 감동을 받지 않고, 대신에 무속 신들이 과업을 극복해나가는 모습 속에 인간적인 고뇌를 발견하고 자신과 동일시하여 감동을 받는다

즉 다른 지역의 신화가 작가나 역사가에 의해서 창작이 되어 수정·보완이 된 지금의 신화의 모습이었다면 무속신화는 신성성을 바탕으로 한 제의 속에 존재해왔고 신화의 내용에서도 과업을 극복해 가는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진

정한 신성성을 체험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무속신화는 제의를 통해 사람들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성된 진실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사람들에게서처럼 삶의 위안과 가치관을 성립해 줄 것이다 다만, 달라진 점은 과거처럼 ‘굿’이란 제전을 통해서 본풀이를 하지 못하고 문학을 통해서 대신 본풀이를 하는 신화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굿이란 제전은 현대 사회에 공간적·시간적으로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안이 강구된 것이다. 무속신화는 신화로서의 위치와 함께 서사문학이기 때문에 고전소설 등과 같은 다른 문학물에도 그 동안 영향을 끼쳐 왔다 이처럼 여러 직능을 가진 신들과 다양한 사건들로 채워진 무속신화의 서사는 과거에 서사문학의 원천이었듯이 현대에도 무속신화가 새로운 문학의 재창조를 위한 원천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 설화와는 다른 무속신화의 주술성과 신성성은 제전의 심방 대신 문학 속의 작가가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심방이 신과 인간의 매개자였던 것처럼 문학적 재창조물의 작가가 신과 독자를 연결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아를 잃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신화는 정체성 획득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것은 코스모스가 신들에 의해 창조되었고 신들은 우주적 생명을 통해 그들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한 것처럼 문화의 어떤 단계의 시초에 있어서 인간은 그 자신을 하나의 소우주로 간주하게 된다²⁹⁾ 따라서 무속신화는 현대인들에게 문학적인 흥미와 감동, 깨달음 등과 함께 신화로서의 세계관을 제시해 줄 것이다 무속신화에 등장하는 각각의 신들 모습과 신들의 과업, 인간을 보살피기 위한 신직 등은 독자에게 우주, 생사, 사랑, 가족 등에 담긴 윤리적인 가치관을 제시해준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창세신화>와 <바리공주>, <세경본풀이>도 위와 같은 현대적 가치를 그대로 지닌 무속신화들인 것이다. <창세신화>는 신과 인간의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기 시작했는지와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가 구체화된 신화이다. 따라서 <창세신화>는 다른 무속신화의 가치관과도 연관이 된다 또한 일반인들은 <창세신화>를 통해서 가장 근원적인 물음의 하나인 자신과 세

29) 신웅철, 앞의 논문, p 132.

계와의 관계를 발견해 낼 수 있다 태초에 인간의 근원과 신과의 관계성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정체성을 잃고 흔들리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자아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무속신화 <바리공주>는 특히 다양한 화소로 짜여진 서사가 돋보인다 <바리공주>의 서사는 사람들의 삶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주인공 ‘바리공주’가 겪는 세계와의 갈등과 자아와의 갈등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이라면,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갈등이다 즉 궁극적인 삶의 실체적인 문제들이 오구신이 된 바리공주의 삶을 통해 형상화된 것이다 우리의 무속신화의 서사 속의 갈등과 해결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한 신기한 이야기들의 잔치가 아니다 신화가 지닌 외경의 대상으로서의 서사와 같은 신들간의 화려한 투쟁 등은 찾기 힘들다. 오히려 그보다는 인간의 평범한 삶과 연결된 서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무속신화의 서사적 특징은 무속제의에서도 보여진다 무속신앙의 주요 관심사는 인간의 현실이나 사회개혁과 같이 고대종교나 세계종교에서 추구되는 것보다도 원시종교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고차원적인 이상이나 윤리보다는 당면한 경제적, 현실적 어려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생존동기가 크게 작용함을 볼 수 있다³⁰⁾ 이와 같은 <바리공주>의 서사는 다른 무속신화의 서사적 특징과도 일치해서 우리 민족의 특수한 가치관을 그대로 형상화한 것이고 현대적인 가치를 발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세경본풀이>는 무속신화가 현대에도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화이다. 일반인들에게 무속신화가 대중적인 신화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무속 신들에게도 개성적인 성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할 필요가 있다. 살아있는 존재와도 같이 만들어 주는 신들의 성격은 사람들과 신의 거리를 좁혀준다 또한 ‘자청비’의 솔직하고 대담한 성격은 사람들에게 억눌린 감정의 해소를 일으키게 한다 즉 사람들은 성격이 살아 있는 신들을 통해 현실에 실재하는 신처럼 느끼게 되고 신들에게 감정이입이 구체화될 수 있다. 즉 무속 신들을 통해서 자신의 숨겨진 자아, 또는 선망하는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신화로서의 치유의 기능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

30) 장남혁, 「巫俗信仰의 死靈觀 研究 - 진오귀국의 象徵分析을 中心으로」, p 11,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그래서 무속신화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감동을 전달할 수 있고 보편적인 가치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속신화의 현대적 가치는 <창세신화>, <바리공주>, <세경본풀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무속신화³¹⁾를 통해서 더욱 풍부한 삶의 구체적 이야기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과거에 무속신화가 사람들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그 가치는 그대로일 수 있다 무속신화는 흥미와 감동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특수한 가치관과 보편적 세계관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31) 무가 중에서도 서사적 구조를 갖춘 서사무가는 종교적 본질과 함께 문학성을 지니고 있다.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차사본풀이>, <사만이본풀이>, <지장본풀이>, <문전본풀이>, <칠성풀이>, <장자풀이>등 많은 서사무가들이 이승과 저승, 가족, 운명 등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3. 문학적 재창조의 방향 찾기

3.1 재창조 작업의 현황

우리의 수많은 고전은 그 동안 소설·희곡 등으로 문학적 창조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무속신화는 전설이나 민담에 비하여 현대적으로 재창조가 된 사례가 질적·양적으로 매우 보기 드물다 그 동안은 몇몇 학자들에 의해 무속신화의 채록과 정리가 연구의 대부분이었다 현재는 선행 연구의 결과로 전국에 분포된 많은 무속신화가 정리되고 발표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는 한 단계 나아가 채록된 많은 이본들의 신성성과 문학성이 온전히 지켜지며 현대적으로 재창조된 신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리의 무속신화가 어디까지 재창조가 이루어져 왔는가를 앞으로의 방향전개를 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문학적인 재창조물들은 무속신화의 문학적 가능성과 함께 일반 다른 옛 이야기와 다른 신화로서의 재창조 방안에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문학적인 재창조란 무속신화의 인물과 서사구조가 여러 이본에서 선별된 기존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작품을 말하는 것이다 <창세신화>의 경우는 천지개벽을 중심화소로 하여 미륵과 석가 또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중심인물이 된다 <바리공주>는 기아모티브를 바탕으로 하여 부모를 살리기 위한 약수를 찾아나가는 여정이 중심화소이다 그리고 주인공인 바리공주가 오구신으로 좌정이 되는 인물이 된다 <세경본풀이>는 제주도의 농축신인 세경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본풀이로 주인공인 지상의 인간 자청비가 천상의 문도령과 사랑을 하여 세경신이 되는 서사구조가 된다. 이처럼 신화 전반에 중심 의미가 되는 인물의 성격과 화소는 재창조된 문학에서 그대로 투영이 된 모습으로 형상화한다.

또 무속신화는 설화나 민담과는 다른 신화로서의 특성을 지녀야 한다 즉 신의 이야기가 되므로 신성성이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그런데 무속신화에서의 신성성은 신의 위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인간을 보살펴주고 인간의 삶을 관장해주는 무속 신들의 역할에서 발현되는 신성성이다 무속 신들이 비범한 인간

의 모습으로 고난을 극복한 후 특정한 인간의 삶을 관장하는 신이 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감탄하게 되고 우러러보게 되며 신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선별된 세 작품을 살펴보면 <창세신화>에는 특별히 신으로 좌정되는 화소가 있는 것은 아니나 맨 처음 인간이 사는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와 인간과 신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가 천지개벽화소, 인세차지경쟁화소 등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대별왕과 소별왕이 이승과 저승을 관장하기 위해 그 자격을 묻는 여러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은 다른 무속 신들이 많은 관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모두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그 속에서 신성함을 느낄 수 있다

또 <바리공주>는 바리공주가 죽은 이의 넋을 인도하는 오구신으로 좌정되서 죽은 자에게는 새로운 삶을 인도해 주는 신이고 산 자에게는 슬픔을 위로하는 신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울타리인 가정에서 버림받은 바리공주가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고 두려워하는 죽음을 관장하게 되는 신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사람들에게 자애로운 존재가 되며 신성함을 획득케 한다

마찬가지로 <세경본풀이>에서도 자청비가 여성의 존재로 남성중심사회에서 남성을 뛰어넘고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천상의 존재인 문도령을 사랑하게 되어 농신이 된다 자청비가 곡물을 관장하는 신이 된 것은 자청비가 지닌 열정적인 사랑의 힘을 바탕으로 된 것이다 즉 그녀가 문도령과의 관계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사랑이 중심이다. 남녀의 사랑은 새로운 존재의 출산을 가능케 하고 번영을 뜻한다 즉 사람들이 곡물을 재배하는 것은 삶의 번영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청비가 신이 되기까지의 여러 화소들은 당시대의 가치관에서 벗어난 것들이다 이는 신화가 인간의 모범적인 가치관과 생활 도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엘리어드의 주장과도 연결이 되는 것으로 자청비는 닫힌 세계의 부조리를 깨트리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부조리한 가치관을 극복하는 자청비가 삶의 번영을 사람들에게 가져다주게 되고 이 속에서 사람들은 자청비의 신성한 힘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무속신화가 정당하게 문학적 재창조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학적 재창조가 이루어진 부분의 대부분은 동화 또는 소설 등의 출판이다

우선, 연구자들이 국문학 전공자가 아닌 대중을 독자로 고려하여 쓴 대중적 자

료집이 있다 김태곤의 『한국의 무속신화』³²⁾와 장주근의 『풀어쓴 한국의 신화』³³⁾가 그것이다 소설과 시 등의 2차물의 문학은 아니지만 선별된 화소로 무속 신화를 소개하고 있어 대중에게 쉽게 우리의 무속 신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다른 구비문학의 문학적 재창조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래동화로 첫 단추를 연 것처럼 무속신화도 어린이용 동화로 문학적 재창조가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 연구하는 <창세신화>, <바리공주>,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1 창세신화 >

번호	작가	동화명	전집명	출판사	년도
1	신경림	이승을 다스리는 소별왕 저승을 다스리는 대별왕	한국전래동화 12	웅진출판	1993
2	박종상	이 세상이 처음 생겨날 때	새로 찾은 우리 신화	예림당	1995
3	문명식	소별왕 대별왕	한겨레 옛 이야기 1	한겨레신문사	1999

< 표2 바리공주 >

번호	작가	동화명	전집명	출판사	년도
1	유한준	어비대왕과 바리공주	신화의 마을	대림출판사	1991
2	강태형	바리공주	한국전래동화 13	웅진출판	1993
3	윤부현	바리공주	-	한국도시출판 중앙회	1993

32) 김태곤,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1985.

33)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2000.

4	김종상	바리공주이야기	새로 찾은 우리 신화	예림당	1995
5	김종상	바리공주	유리카 환타피아 애니메이션 전래동화 25	학원출판사	1995
6	신경림	바리데기공주	우리 겨레의 옛날이야기 9	한길사	1995
7	이현경	부모를 되살린 바리공주	한국의 신화 제 2부 구전신화	삼성문화	1995
8	이만수	오구대왕과 바리공주	우리고전 우리 신화 3	서지원	1996
19	최래옥, 박완서, 정채봉 편집위원	바리공주	고려원 한국전래동화 28	고려원미디어	1997
10	허은미	바리공주- 저승을 찾아간 소녀	한겨레 옛 이야기 2	한겨레 신문사	1999
11	채찬석	바리공주	애니메이션 한국전래동화 16	(주)한국뉴턴	1999

< 표3 세경본풀이 >

번호	작가	동화명	전집명	출판사	년도
1	강태형	농사를 맡은 신 자청비	한국전래동화 11	웅진출판	1993
2	김은하	자청비와 문도령	한겨레 옛 이야기 3	한겨레신문사	1999

그간에 무속신화가 사람들의 읽을거리로 재창조된 작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되지만 구체적 성과를 보면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내용적인 면에서 무속신화라는 문학적 특징이 결여된 채 대중에게 무속신화가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스토리의 전개에만 따라가다 보니 신화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옛이야기 정도로 전락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바리공주>는 버려진 바리공주가 이승과 저승을 다니며 여러 영혼들을 구제하여 오구신으로 좌정되는 서사로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입체적인 서사구조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동화에는 구약여행을 효 사상이란 주제로 한정지어 신화로서의 맥락을 잃고 있었다 즉 <바리공주>가 망자를 구원하고 죽음의 의미가 슬픔만

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오구신으로서의 신성성이 결여된 상터였다

그리고 무속신화의 소개가 몇몇 작품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무속신화가 소개되어지고 있지 못했다 대중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바리공주>는 동화로 재창된 경우가 많은 반면에 그 외의 무속신화들은 재창조 경우가 드물었다 그것은 그만큼 동화 작가들에게도 무속신화가 낯선 장르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출판물에는 무속신화 <바리공주>를 재창조한 <깨어나는 여신>³⁴⁾, <바리데기>³⁵⁾, <바리 - 길 위에서>³⁶⁾, <바리데기 신화>³⁷⁾, <비리데기의 여행 노래>³⁸⁾ 와 이 외에도 제주도의 무속 신들의 성격을 띤 인물유형을 가진 <집으로 가는 길>³⁹⁾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무속신화의 서사를 부분적으로 차용하고 있을 뿐 원래적인 무속신화의 의미를 찾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어린이에서 청소년, 나아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학적 재창조물이 필요한 시기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학물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학물보다는 화소의 제약이 불필요하고 평면적 주제에서 입체적 주제를 형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 ‘문학적 재창조’의 논리

- 그리스·로마 신화와의 비교를 통하여

문학은 인간과 삶 그 자체이고, 인간의 역사인 삶의 현실, 삶의 진실과 변천 등을 묘사하고 이 세계와 인간 공동체에 정착되는 실존적인 조건을 설명하므로 문학의 사명은 신화의 사명과 유사하다.⁴⁰⁾ 그리고 신화는 어른들의 꿈이고 꿈은 어린이의 신화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신화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인간의 삶과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는 것이다. 꿈이 해몽되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

34) 김재희, 『깨어나는 여신』, 정신세계사, 2000

35) 김영리 글, 전갑배 그림, 신동훈 구성, 『바리데기』, 도시과학연구원출판부, 1999

36) 송경아, 『바리 - 길 위에서』, 민음사, 1996

37) 이창대, 『바리데기 신화』, 문학아카데미, 1990

38) 강은교, 『바리데기의 여행노래』, 민음사, 1981

39) 이명인, 『집으로 가는 길』, 문이당, 2000

40) 안진태, 『신화학 강의』, 열린책들, 2001, pp 266-267

듯이 신화도 해석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정신분석가 프로이트⁴¹⁾는 꿈은 소원 성취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꿈속에서 이루어져 소원 성취로서의 꿈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여기서 꿈이 잠재적 사고를 은폐시켜 묘사하기 위해 상징을 이용한 것처럼 신화 속에도 인간의 삶을 형상화한 비밀을 상징을 통해 형상화했다 이 비밀들은 수많은 상징으로 신화 속의 가치로 내면화되어 있다

이처럼 신화는 우리의 삶 속에 잠재해 있는 꿈을 상징을 통한 문학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세계 도처의 신화와 제의 속에 반복되는 수많은 상징의 심층적 의미는 상호 연관 속에 있다.⁴²⁾ 따라서 신화의 상징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수수께끼와 같아서 상징의 비밀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인류의 보편성을 지닌 신화로 가치가 인정받는 대표적인 신화가 그리스·로마신화이다 내용적인 면에서 고도의 상징으로 보편적 사유와 행동양식을 형상화했고 형식적인 면에서는 모든 신들의 이야기를 서사시로 엮음으로써 흥미와 감동을 더해주었다 수많은 상징들은 현재에 수많은 서사시인, 문인, 작가, 조각가 등에 의해 끝없는 새로운 재창조물의 원천이 되고 있고 그리스·로마의 신들은 문학이 아닌 문화가 되어 삶 속에 그대로 살아 있다 물론, 그리스·로마신화의 스토리 또한 오늘날 그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남녀간의 사랑의 불가사의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직도 수많은 예술작품의 귀중한 모티프로 이용되고 있다⁴³⁾ 사랑이란 감정을 여러 신들의 모습으로 유형화 시켜 미묘한 사랑의 감정을 구체화 시켰다. 아프로디테의 어린 아들 에로스가 갖고 다니면서 멋대로 쏘아대는 사랑의 화살은 인간의 애정이란 것이 합리적인 설명을 붙이기 어려운 기묘한 동기에서 이루어짐을 생각게 한다.⁴⁴⁾ 에로스의 화살은 그리스·로마신화에 여러 곳에 등장하여 신들간의 사랑과 신들과 인간의 사랑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그리스·로마신화는 상징을 통하여 인간의 삶 속에 투영되어 있는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의 의미를 부여시키고 있다.

그리스·로마신화가 삶의 표현을 상징을 통해 형상화 한 모습은 우리의 무속신화 속에도 존재하는 상징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상징은 신화를 사람들에게

41) 프로이트, 『꿈의 해석』, 1999 열린책들

42) 안진태, 앞의 논문, p. 91.

43) 양영수, 「濟州 神話에 나타난 共存과 사랑의 原理 그리스 신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14차, 1997.

44) 양영수, 「한국 신화와 그리스 신화의 비교연구」, 『제주도 연구』 8집, 1990.

기억시킬 수 있는 기호로 문학 또는 문화로 재창조할 수 있는 길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속신화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상징 속에서 숨겨진 인간에 삶의 의미를 찾도록 해야 한다 상징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고 신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속신화의 문학적 재창조의 방향일 것이다

상징을 통한 삶의 형상화가 그리스·로마신화의 형식적 특성이라면 내용적인 특징은 끊임없이 긴박감 넘치는 신들의 갈등이다

여러 신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서사시로 엮여져 있는 그리스·로마신화의 신들은 상·하의 계보가 있다 이점이 어린이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독자층을 마련하게 된 동기의 하나이다. 여러 신들이 상하의 계보가 있다는 것은 갈등을 만들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의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을 만드는 순환적인 서사에는 숨어있는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즉 신과 신의 갈등이 일회적인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을 낳는 지속적인 관계로 개별적인 신화보다도 실재하는 역사처럼 장편의 서사시에는 흥미와 전달하는 메시지가 더욱 강렬하다

그러나 무속신화의 경우는 신들의 관계가 그리스 신들처럼 위계질서가 분명하지 않다 물론 세상을 창조한 창세신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존재를 그리스의 제우스신처럼 최고의 신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무속 신들은 신들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로마신화처럼 투쟁적인 관계가 아닌 평화적인 관계이고 신들간의 관계가 연결된 장편의 서사시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속신화가 갈등이 없는 신화라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로마신화는 타자와 갈등을 만들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었으나 무속신화의 신들은 자신의 자아와의 갈등과 사회의 제도와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오히려 더욱 본질적인 사유의 문제들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본질적인 사유의 문제들이란 죽음, 가족, 사랑 등의 문제인데 무속신화는 이러한 본질적인 사유의 문제들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병을 치료하는 치유의 기능까지 해왔다 즉 그리스·로마신화의 갈등의 양상을 통해 무속신화의 갈등이 사람들의 삶에 공유하는 직접적인 문제들을 꺼내들어 그것을 해결해왔고 이점이 무속신화가 현대에도 문학적으로 재창조될 수 있는 가능성의 열쇠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그리스·로마신화의 특성은 신들의 갈등이 본질적인 문제들의 성격은 아니었지만 갈등의 양상이 인간의 내면 세계를 진술하고 사

실성이 있게 형상화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신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을 살펴보면 각 신마다의 개성있는 다양한 로맨스를 통해 여러 형태에 여성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무속신화 속의 여신들이 언제나 관대하고 너그러운 심성을 지닌 여성이라면 그리스의 여신들은 끝없는 질투심과 복수심 등을 지닌 신들이다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는 제우스의 외도로 인해 끊임없이 다른 여성들을 억압하고 복수한다 현실 사회에서 남편의 외도 문제가 생겼을 때 여성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상대 여자에 대한 증오인 것과 같다 남편은 유혹을 당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상대 여자만 단죄하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헤라의 반응이다.⁴⁵⁾ 반면에 처첩간의 갈등을 그린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의 매화부인과 여산부인은 남편들의 외도에 대하여 그 어떤 증오심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 여성에게 분노를 쏟기도 전에 본부인의 존재는 사라져 버린다 본부인들은 첩의 존재들로부터 억울한 죽음을 당한 후 자신들의 자식들을 지키기 위하여 다시 등장한다 따라서 신화 속 어디에도 여신이 된 매화부인과 여산부인 등은 남편과 상대 여자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저항적인 감정이 형상화되어 있지 못하다 단지 자식들을 지키려는 모성애로 부정적인 행위를 한 상대 여성을 단죄 할뿐이다 이러한 매화부인과 여산부인 등의 절제된 모습은 여성들의 공감대를 사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사회가 강요하는 문화의 한 형태로 이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인간 내면의 갈등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한 사실적인 형상화는 그리스·로마신화가 대중적인 신화가 된 원동력인 것이다 즉 인간의 모습을 한 수많은 신과 영웅들이 등장하여 권력, 투쟁, 애욕, 질투, 무자비한 복수의 드라마를 종횡무진 펼쳐 보여 주는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보여 주는 인간적인 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⁴⁶⁾

금세기에 들어 예술의 기원 역시 신화에서 분화 발전된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 예술의 기원론 중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본능설, 칸트의 유희본능설, 허드슨의 자기표현본능설, 또는 진화론자들의 유인본능설 등 심리학적 기원설이 주창되기도 했다.⁴⁷⁾ 신화가 문학뿐 아니라 민속학, 종교학, 철학 등에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이

45) 안진태, 앞의 책, p.214

46) 안진태, 앞의 책, p.182.

47) 민속학회, 『한국 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1994.

었다

그리스·로마신화의 바탕이 되는 서양 사고에 근원인 그리스적 사고가 어떻게 발생되고 어떤 발전 경로를 거쳤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 동안 여러 관점에서 그 사고의 기원을 탐구하려 했지만 만족스런 답변이 주어진 적이 없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오늘날에 와서는 신화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면서 그리스적 사고 역시 그들의 신화 세계로부터 기원했다고 보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그리스·로마신화는 그리스 사고 전반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처럼 문학에서 문화에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은 그리스·로마신화가 신화 속에 감추어진 상징을 민족적·인류적인 테두리 안에서 비밀을 풀어나갔고, 장편의 서사시로 갈등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일반인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신화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무속신화를 전문가와 무속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삶과 함께 하는 신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속신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과 함께 문학적 재창조 형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로마신화처럼 민족적·세계적인 신화가 되기 위해서는 신화 속에 숨겨진 상징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옛 이야기의 차원을 넘어선 신화에는 삶의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사유들이 내재되어 있고, 그것을 상징이란 형식으로 함축하고 있다 결국, 상징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찾을 때 우리의 무속신화도 사람들에게 문학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리고 상징을 풀어나감으로써 무속 신들이 다른 신화 속 신들보다도 더욱 본질적인 삶의 문제들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속 신들의 성격과 갈등 등을 생동감 있고 실재하는 모습으로 형상화할 때 사람들은 자신과 동일시하며 일치되어진다. 너무 윤리적이고 틀에 정해진 위엄있는 신의 모습은 일반인들에게 지루한 옛 이야기정도의 감흥밖에 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무속 신들의 계보가 상·하 분명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닐지라도 그들의 모습을 인간과 닮은 모습으로 형상화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로 전이시킬 수 있다. 신들에게서 자신들의 고민을 발견하고 해결방법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재창조 작업의 실제

4.1 신화 다시 쓰기, 그 기본 기획

신화는 종교, 학문, 예술로 삼위일체였으나 근대로 들어오면서 분화되기 시작했다 48) 이와 함께 과학의 합리성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신화는 과장된 옛 이야기 정도로 치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들어 신화는 다시 삼위일체가 되어 많은 출판물과 대중문화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신화의 역할인 인간의 근원 탐구와 인간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신화의 경우도 그 동안 문헌신화만이 소개되어졌지만 근래에 들어 곳곳에서 존재했던 무속신화가 재창조되기 시작했다. 연극과 책 등의 다양한 재창조물 중에 이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출판된 책을 통해서 무속신화의 신화적 가치와 문학적 가치가 얼마나 실현되어 재창조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의 출판물을 통한 검토는 자칫 추상적이고 실제적이지 못할 문학적 재창조 방안을 좀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겨레신문사>가 무속신화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동화로 기획한 ‘한겨레 옛 이야기’를 통해서 무속신화를 문학적으로 재창조할 때 생겨나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상을 청소년 또는 성인으로 확장한 문학적 재창조 방안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49)

우선, 무속신화의 문학적 재창조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부분이 어린이용인 출

48) 민속학회, 앞의 책, pp.320-321

49) <한겨레신문사> - ‘한겨레옛이야기’ 시리즈, 신동훈, 정출현 기획·구성, 1999.

1. 소별왕 대별왕 / 당금애기
2. 바리공주 / 강남국 일곱 쌍둥이.
3. 황우양씨 막막부인 / 자청비와 문도령.
4. 한락궁이 / 원천강 오늘이
5. 강림도령 / 궤네깃도.

판물의 대상을 청소년에서 성인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성인대상의 문학들이 몇 편 출판되기는 했으나 소재를 차용하기만 할뿐 본질적인 무속신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또한 문학적 재창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용 동화는 수적인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무속신화로서의 가치를 살린 작품들을 찾기 어려웠다. 그것은 대상이 어린이인 만큼 인물의 복잡한 내면 묘사와 남녀의 결연 등의 다양한 화소를 그대로 형상화 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청소년과 성인은 무속신화에서 형상화한 인물들의 다양한 심리와 오랜 세월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신화로서의 가치가 더욱 발현될 수 있다.

즉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학은 아동들에게는 전달될 수 없는 신화의 여러 가치관과 세계관을 전달하기에도 용이하다. 아동들은 무속신화에서 평면적인 주제만을 수용할 수 있지만 삶과 죽음의 문제, 복잡한 인간의 심리와 행동과 같은 신화의 본질적인 가치관은 직·간접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또는 성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민족적·인류적으로 보편성을 지향하고 있는 대부분의 무속신화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문학적 재창조가 될 수 있는 대부분의 무속신화에는 전체 신화에 적용되는 가치관의 기준인 신과 인간의 질서와 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우리의 무속신화가 다른 민족의 신화와 다른 특수한 민족적 가치관을 제시해 줄 수 있어 신화의 전체 서사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리스·로마 신화>의 신들은 인간과 같이 욕심과 투쟁, 질투 등의 감정을 지닌 존재로 형상화되었지만 그리스 신들의 모습은 인간을 실험하는 엄격하고 절대적인 모습이다. 반면, 무속신화의 신들의 모습도 인간처럼 실수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행동들을 하는 악신도 있지만 그리스 신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즉 무속신들은 인간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보살펴주는 모습으로 무속신화의 신과 인간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이며 동일시되는 존재가 된다. 따라서 무속신화가 문학적으로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과 인간의 관계가 기본이 되어 신화화소를 선택 또는 변형해야한다. 그것이 우리 무속신화의 특수한 가치관이 되며 세계인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관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창세신화>를 통해서 신과 인간의 질서와 체계를 정립했

다 <창세신화>는 모든 신화의 원형으로 천지개벽과 인간 탄생 등의 중심화소를 통해 신과 인간의 만남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다른 무속신화 전반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된다

<창세신화>를 통해서 밝혀낸 신과 인간의 질서와 체계를 기준으로 무속신화는 새롭게 구성되어 문학적으로 재창조 될 수 있다 현재 채록된 모든 자료들이 재창조를 위한 서사의 기본 화소가 되나 이 모든 자료들은 구비 전승되면서 이야기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신화적 의미가 있는 화소들을 선별하여 서사구조를 갖추게 된다⁵⁰⁾ 즉 무속신화를 재창조하기 위하여 화소들을 새로이 버리고, 잇고, 바꾸고,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속신화의 원형을 새롭게 변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채록된 이본들의 화소를 바탕으로 하여 주인공이 과업을 극복하고 신으로 좌정되는 것이 중심화소가 되어야 한다 다만, 현대적으로 재구하기에 의미를 찾기 어려운 화소들은 문학적 흐름에 따라 변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바리공주가 약수를 구하기 위해 동수자와 결연하고, 또 전제된 약속이 바리공주가 아들들을 꼭 낳아주어야 한다는 과업은 과거의 유교적 가치관의 반영으로 현대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가치관으로 변형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화에서는 바리공주와 동수자의 결연을 남·녀의 낭만적 사랑으로 변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형은 대상이 어린이인 동화인 경우이고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문학물에서는 또 다를 수 있다는 여지가 남아 있다

특히, 서사 구성의 재구는 무속신화만의 고유한 가치관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방안으로 무속신화의 가치를 정당하게 이해한 연구자들의 몫이 큰 부분이기도 하다 전영숙은⁵¹⁾ <바리공주>를 버려진 바리공주가 자아를 찾아가는 발전적 존재로 이해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장소설을 기획하기도 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다양한 화소와 다양한 인물들의 갈등이 존재하는 <바리공주>를 통해서 서사 구성의 재구를 살피고자 한다

다음으로 문학적 재창조를 위해서는 신화 속 인물들의 모습을 살아서 생동감이

50) <○○지역본>과 <○○○○구송본>에 따른 서사적 구성이 아니다. 각 지역본의 공통화소가 중심이 된 서사구조이고 이본에 따른 화소를 선별하여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진 것이다

51) 전영숙, 앞의 논문, p.136.

있는 존재로 만드는 방안의 기획이 필요하다. 그리스 신들은 대중에게 상징적인 존재로 각인되어 종교·학문·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성공적인 사례이다. 신들의 성격이 각인되서 얻어지는 또 하나의 효과는 그만큼 신화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성있는 신들의 성격은 각각의 신직과도 무관하지 않고 무속신화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출산을 관장하는 당금애기는 희생과 인내심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본풀이 내내 당금애기는 부모와 형제에게 버려지는 수난을 겪으면서도 혼자서 자신이 잉태한 자식들을 낳고 키우는 모습이다. 또 이승에서 다른 신들과 달리 푸대접을 받는 <문전본풀이>의 척도신은 더러운 변소를 지키는 신이다. 척도신은 이승에서 노일 저데귀일의 딸로 태어나 가정이 있는 남선비를 농락하여 본부인을 죽이고 일곱 아들들마저 죽이려 하는 악행을 범한다. 그래서 그녀는 심술이 많고 욕심이 많은 인물로 형상화되어서 결국 더러운 변소를 지키는 신이 된다. 반면에 죽어서도 아들들을 지키려고 한 본부인은 집안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부엌의 신인 조왕신이 된다. 이처럼 신화 속 신들의 성격은 직접적으로 신직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승에서의 선한 인물은 사람들의 삶을 돕는 좋은 신이 되고 반면에 이승에서의 악한 인물은 죽어서도 악신이 된다. 또한 각각의 신에게 주어지는 개성있는 성격은 사람들에게 신을 실재하는 존재로 가깝게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재창조된 동화를 바탕으로 <창세신화>·<바리공주>·<세경본풀이>를 통해서 신화의 재창조 방안을 찾아 볼 것이다.

우선, <창세신화>에서는 무속신화의 바탕이 되는 신과 인간의 길서와 체계를 밝혀 우리 신화의 가치관을 정립한다. 정립된 신과 인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바리공주>에서는 신화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서사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세경본풀이>에서는 무속신화를 일반인들과 친숙한 신화로 만들기 위해서 신화 속 인물을 캐릭터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기획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들은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을 제시하는 우리 신화의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함이며 다시 쓰기의 기본 기획 방안들을 토대로 무속신화가 여러 형식의 읽을거리로 재창조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무속신화가 소설, 시, 희곡 등 다양한 문학의 장르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4.2 재창조 작업의 몇 가지 국면

4.2.1 창세신화 : 신과 인간의 질서와 체계

신화는 대개 우주발생론부터 시작한다 각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창세신화의 서사구조는 각각 상이하지만 ‘어떻게 이 세계가 생겨났는가’라는 물음과 ‘인간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공통된 궁극적인 물음으로 시작이 된다 그리스 신화와 철학의 경우도 우주론에 기초하여 이 세계에 나타나는 다양한 자연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고, 나아가 인간의 운명과 세계의 법칙을 탐구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해명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행동의 원리를 성찰하도록 만든다⁵²⁾

이처럼 창세신화는 신화의 본질로서의 우주와 인간, 신과 인간에 대한 기본 사유를 포함하기 때문에 무속신화 전반의 신과 인간의 질서와 체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무속 신화로 전해지는 창세신화는 내륙 지역과 제주도 지역으로 나뉘어진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지역별 서사의 차이와 구송자에 따른 이본 차이에 의미를 두고 문학적인 해석을 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본에 따른 차이에서 그 의미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본들을 우리가 가진 창세신화의 기본 화소로 전제한 후 기본 사유들에 화두를 던지는 화소들을 선별해서 신화의 기본이 되는 신과 인간의 관계와 세계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륙 지역과 제주도 지역의 창세신화는 무속신화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본이기 전에 서로 같은 원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신화가 지닌 본질로서의 의미를 재구하기 위하여 화소들의 의미를 살피고 재창조의 방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창세신화의 기획과 우주와 인간의 질서와 체계를 검토하겠다

52) 장영란, 「그리스 신화와 철학에 나타난 네 요소에 관한 철학적 상상력의 원천(I)」, 『한국 서양고전학연구』, 1999

가. 신화의 시공간

1) 개벽의 의미

우리 신화에 천지개벽이 구체적으로 서사된 신화는 무속신화의 창세신화 밖에는 없다 직접적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인 상태에서 우주가 분리된다 여기에는 분리하는 창조주가 있는 개벽화소와 창조주가 구체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은 개벽화소로 나뉘어 진다 우선, 손진태의 <창세가>를 살펴도록 한다

하늘과 땅이 생길 적에
미륵님이 탄생한즉
하늘과 땅이 서로 부터
떠러지지 아니 하소아
하늘은 복개 꼬지처럼 도도라지고
따는 사(四) 귀에 구리기둥을 세우고

- <김쌍돌이본 창세가> -53)

천지개벽의 주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천지의 생성과 개벽 및 미륵의 탄생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천지 개벽이 창조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자성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54)

다음 <생긔>은 천지개벽이 자성으로 이루어진 화소이다.

인간 사람이 하늘이 열릴적에
자방(子方)으로 열리시고
이 땅이라 벽(闢)할적에
축신방(丑迅方)으로 벽합시고
사람으느 인방(寅方)으로 법을 시게 놓고

- <강춘옥본 생긔> -55)

53)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향토문화사, 1930, p 1.

54)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p.230

55) 임석재·장수근, 『관북지방무가(추가)』, pp.1-2

하늘은 자시에 자방으로 열리고 땅은 축시에 축방으로 열리고 사람은 인시에 생겨났다는 것은 십이지의 시간 순서에 따라 인세의 공간이 형성된 순차를 기술한 것으로서 우리 고유의 사상 체계가 아니고 중국에서 체계화된 우주생성론이 도입된 것으로 논의하기도 했다⁵⁶⁾

또 제주도 전승의 초감제에서는 혼돈의 ‘카오스’에서 하늘과 땅이 스스로 열린 후에 하늘에서 청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흑이슬이 솟아나 서로 합쳐서 음양상통으로 만물이 생겨났다는 내용이 전승된다.⁵⁷⁾

지금까지 이처럼 창세신화는 천지개벽의 형상과 주체자에 존재여부의 의미가 중심이 되는 연구였다. 천지 개벽이 되는 구체적 상황은 구송자에 따라 다른 서사를 갖고 있었지만 모두가 신 또는 자연의 순리 등으로 천지가 열린 것으로 신성한 초자연적인 힘이 근원이다. 즉 우리 민족은 천지개벽이란 상황을 신성하고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이 생각했던 천지세계에서 신화의 시공간을 살펴보고 신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창세신화를 바탕으로 문학적 재창조가 이루어진 한겨레 옛이야기 시리즈의 동화 <소별왕 대별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장간 신은 옥황상제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재미없는 세상을 한번 바꾸어 보심이 어떠하울지?”

“세상을 바꿔요?”

“예, 그렇사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있어 온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꾼단 말이오?” 옥황상제는 그게 말이 되냐는 듯이 물었습니다.

“상제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신데, 무엇인들 못 하시겠나이까? 다른 방법이 없사오니 부디 망설이지 마시옵소서.”⁵⁸⁾

천지가 개벽이 되는 상황을 신들이 하늘나라가 너무 심심해서 세상을 바꾸는

56) 서대석, 앞의 책, p.231

57)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58) 문명식, 『한겨레 옛이야기 1 소별왕 대별왕』, 한겨레신문사, 1999 p.16.

공사로 형상화했다. 이는 <창세가> 또는 <생긔>에 개벽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었다. 우리의 창세신화에는 천지개벽이 신의 의도로 생성된 현상으로 형상화되지 않았고 자연의 섭리로 천지개벽이 되고 신은 개벽의 상황에서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동화 <소별왕 대별왕>에서는 서구적인 사고관이 반영된 천지개벽의 상황을 상상력에 의지하여 형상화하고 있었다. 신들이 완벽한 하늘나라가 심심하여 천지를 개벽했다는 상상력은 우리가 천지개벽을 카오스 상태에서 코스모스 상태로 변화, 발전되었다는 것으로 본 해석과는 상반되기 때문이다. 동화에서처럼 개벽이 완벽한 하늘나라에 변화를 주기 위함이라면 오히려 그 모습은 코스모스상태에서 카오스상태로 변화이기 때문이다.

또 대장간 신의 존재는 그리스 신화에 헤파이토스토티스와 닮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절대 힘을 가진 대장간 신의 존재는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존재의 설정은 서양의 신들의 체계와 흡사하다.

따라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창세신화>로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천지개벽이 신에 의해서 무의미한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형상화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정 신에 의해서 주도되는 모습도 신과의 관계가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 수평적인 관계인 우리의 무속 신과는 거리가 있다. 그보다는 개벽이 신과 인간을 공존하며 살아가는 우주론적인 구조로 만들기 위한 우주의 변화로 형상화되어야 한다. 즉 개벽의 의미는 신과 인간의 공간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신과 인간의 세계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질서를 잡는 공간의 과정이 된다. 이것은 인간이었던 바리공주가 약수를 구하기 위해 이승에서 서천서역국과 저승의 세계로 오가는 모습으로도 형상화되어 있다. 즉 개벽은 혼돈의 우주를 바로잡고 신과 인간이 함께 하는 세계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개벽의 의미를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 우주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한 시공간적인 가치관은 인간이 신으로 좌정되는 과정인 본풀이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천지개벽은 단순한 천지의 분리가 아닌 신과 인간이 함께 하는 시공간의 새로운 형성으로 다른 무속 신화에도 그 배경이 된다. 신과 인간이 함께 하는 우주를 코스모스로 보는 관점은 다른 신화에도 발견되는 우주관이나 우리의 무속 신화에서는 천지개벽을 신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새로운 가치관이 함께 포함된다. 결국, 천지개벽을 통해 신과 인간의 질서와 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인간의 탄생

모두가 신의 존재가 전능한 존재로 신성성과 영웅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는 어떤 형상이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태초의 인간의 기원을 먼저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기원은 세 가지 유형을 나뉘어 진다 첫째가 함홍의 김쌍돌이 구송한 <창세가>의 벌레에서의 기원을 들 수 있다. <창세가>에는 태초의 남녀가 하늘에서 금벌레 은벌레의 형상으로 떨어졌다고 채록한 바 있다

옛날 옛적에

미력님이 한 짝 손에 은(銀)쟁반 들고 한 짝 손에 금(金)쟁반 들고,

하늘에 축사(祝詞)하니

하늘에서 벌기 떨어져 금(金)쟁반에도 다섯이요 은(銀)쟁반에도 다섯이라

그 벌기 자라와서 금(金)벌기는 사나히 되고 은(銀)벌기는 계집으로 마련하고

은(銀)벌기 금(金)벌기 자라와서 부부(夫婦)를 마련하야 세상(世上)사람이 나았어라.

- <창세가>⁵⁹⁾

인간의 태초 원형이 벌레라는 존재인 것은 인간이 작은 미물과도 같은 약한 존재라는 점으로 해석이 된다 그런데 작은 미물의 존재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은 ‘금벌레’, ‘은벌레’라는 존재의 형상 때문이다 금과 은은 사람들에게 귀한 물질의 단위가 되므로 신에게 있어 인간의 존재는 작고 약한 존재이나 귀한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다만, 금벌레가 남자이고 은벌레가 여자인 것은 신화 이전에 사람들이 남성을 여성보다 우선시하는 유교적인 가치관이 담긴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태초의 남녀가 부부로 마련이 된 것이다 우주에 인간의 존재가 시작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라는 사고를 기반으로 하여 그 신화적 생명체 속에 인간정신을 담아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⁶⁰⁾ 인간의 바탕을 신과 같이

59) 손진태, 앞의 책, p 8

60) 김수중, 「한국신화에 나타난 인간관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1993. p 19

하늘에 둔 점은 무속신화가 다른 외국의 신화와는 달리 신과 인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라보는 점과도 일맥상통하다 신이 인간을 보살펴주는 존재이기는 하나 종속적인 관계는 아닌 것이다

특히, 벌레가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는 상상력은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발상으로 다른 창세신화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중국의 반고신화에 반고가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 속에 기생하던 벌레가 사람이 되었다는 화소가 있기는 하나 그 의미가 우리와는 다르다 반고신화의 경우는 인간의 존재가 신의 일부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되므로 그 자체가 존재의 이유를 인정받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반면 <창세가>의 금벌레와 은벌레는 인간이 신과 같은 천상의 존재로 수평적인 관계로 그 자체가 하나의 긍정적인 존재로 성립되어진다

두 번째가 함홍의 강춘옥이 구송한 <생긔>에 나타난 흙에서 창조된 인간이다. 임석재, 장주근이 채록한 바에 의하면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창조관념으로 신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신의 절대성이 강조되는 화소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수직적·종속적 관계로 보는 것이 된다

인간(人間) 사람이 하늘이 열릴 적에
자방(子方)으로 열리시고
이 땅이라 벽(闢)할 적에
축신방(丑迅方)으로 벽합시고
사람으느 인방(寅方)으로 법을 시게 놓고
이 천지(天地)를 개벽하고
사람이라 옛날에 생길 적에
어디서 생겼습니까(까)?
천지(天地) 압록산에가 황토(黃土)라는 흙을 모다서
남자(男子)를 만들어 노니
여자(女子) 어찌 생산될까
여자(女子)를 만들었습니다.
흙이가 사람이 되느대로
살 동안에 땅에서 만가지 물건을 내서 잡숫고 살아 노이러가다가
사후(死後)에 떠나므로
그 때에 도로 들어가 흙을 보태게 되었습니다⁶¹⁾

‘흙에서 난 몸이 흙으로 들어간다’ 또는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우리의 관념과도 통하는 내용으로 흙 창조론은 다른 창세신화에서도 보여지는 화소이다 인간의 창조론과 함께 ‘흙’이라는 창조물질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성서>에 나타난 인간창조의 기록이 있고 중국의 <준남자>도 있다 62) 그래서 이 신화소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논증한 연구도 있었다 63) 그만큼 흙과 연관시킨 인간의 창조론은 사람에게 보편적인 사고관으로 흔히 볼 수 있는 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흙은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원천의 하나로 인간도 흙에서 났다는 상상력은 설득력이 있는 상상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상상력은 신이 인간의 위에 있는 관계로 설정된 존재인 것도 알 수 있었다. 새와 말이 말을 하고 나무가 걷는다는 등의 질서를 갖추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인간의 창조가 코스모스적 세계로 만들어 가는 일환의 하나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거리가 있는 관계로 수직적인 관계로 보여진다

세 번째가 음양의 결합으로 창조된 인간이다 음양의 상통으로 천·지·인이 생성된 형상으로 박봉춘이 구송한 <초감제>에 그 내용이 전해진다 구체적인 창조주가 없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며 사람도 비로소 생성이 된다

천지개벽이엇떠케되엿스릿가
하날로부터조이슬이나리고
따으로부터물이슬이소사나와서
음양이상통한직, 천개는자하고
지개는축하고, 인개는인하니
하날머리는갑자년갑자월갑자일갑자시에
자방으로열이고
따머리는을축년을축월을축일을축시에
축방으로열이고

61) 임석재·장주근, 『관북지방 무가』, 문화재관리국, 1965.

62) 김수중, 앞의 논문

63)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학』 4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1980, p 13-14

사람머리는병방으로
병자년병자월병자일병자시에열이시고
동방으로는이염을드르고
서방으로는출리를치고
남북방으로나래를들으고
천지개벽이되였습니다⁶⁴⁾

음양상통 후에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스스로 열리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신화의 인간 출현 인식을 음양의 결합에 두고 있다고 보기도 했다⁶⁵⁾

이와 같은 여러 유형의 인간창조설 중에서 동화 <소별왕 대별왕>은 손진태의 <창세가>에 있는 금벌레·은벌레 창조설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금벌레와 은벌레라는 천상의 원형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대신에 신이 창조한 금벌레와 은벌레로 변형을 하였다

그 서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옥황상제는 신들이 만든 동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새로운 동물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오 이 동물의 모습은 우리들 신과 비슷하고, 마음씨 또한 우리를 닮아야 하오”
옥황상제는 농장에서 기르는 금벌레와 은벌레를 각각 다섯 마리씩 가져오게 했습니다 잠시 후 농장 신이 금빛과 은빛을 뿜내며 꿈틀거리는 벌레 열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옥황상제와 여러 신들은 힘을 한데 모아 벌레들에게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신들이 지쳐서 주저앉을 때쯤 일이 끝났습니다 옥황상제가 벌레들에게 말했습니다
“금벌레, 은벌레는 듣거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저 아래 세상으로 보낼 터이니, 너희들은 맑은 이슬과 빗물만을 먹고, 마른 풀 위에서만 자도록 하여라”⁶⁶⁾

앞에서 신이 천지 개벽을 만든 것처럼 신이 인간도 만든 것으로 형상화했다 그러나 신이 인간을 만든 수직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무속신화의 가치관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지는 못했다. 인간의 모습을 신과 가장 비슷하게 창조하고 마음씨

64) 赤松智城, 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 상·하, 동문선, 1991.

65) 김수중, 앞의 논문, p 68

66) 문명식, 앞의 책, p 26

도 신과 닮게 하는 상상력은 신과 인간의 관계가 먼 관계가 아닌 가까운 관계임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습 속에서 신의 모습을 함께 찾고자 하는 가치는 과업을 극복하고 신이 되는 우리의 무속신화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신이 창조한 인간이 신의 의지로 인간을 닮은 것은 우리의 무속신화에서 신과 인간이 모두 천상에서 내려온 존재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이는 본래의 <창세가>에서 신과 수평한 관계인 인간 창조설과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벌레와 은벌레가 인간이 된 화소는 인간이 신과 같은 천상의 존재임이 드러나 사고관으로 무속신화만의 고유한 인간창조설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을 신과 같은 천상의 존재로 보는 것으로 신을 인간의 창조주로 보지 않는다. 동화에서처럼 신이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고 창조하는 화소는 오히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관계로 본 강춘옥의 <생긔>에서처럼 신이 인간을 흙으로 빚은 화소와 닮아 있다.

그러나 신이 인간을 만든 주인이라는 사고관은 우리의 무속신화의 가치관으로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천지개벽 화소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무속신화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우주에서 함께 세상을 만들어 가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동화에서는 신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인간을 창조하고 있다. 그것은 앞서 천지개벽의 의미를 신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우주의 창조로 본 것과는 위배되는 형상화로 그보다는 창세신화의 원형을 살려 신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임이 더 타당하다. 즉 신과 인간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존재로 두 존재는 공통된 시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함께 공유하는 시공간을 가진 신과 인간의 무속신화는 고유한 서사를 가지게 된다. 다른 민족의 신화에서는 신이 인간의 세계로 이동할 수는 있으나, 인간은 신의 세계로 이동할 수 없다. 특별한 경우에 인간이 신의 세계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것은 신에 대한 도전이며 화를 자초하는 일로 형상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천지개벽과 인간창조의 화소를 통해 무속신화에서는 신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시공간을 지니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는 다른 무속신화의 가치관에도 연장선이 되어 그대로 투영된다. <바리공주>의 경우에도 바리공주는 약수를 구하기 위해 신들의 공간으로 수평 이동하게 된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수를 구하고 지옥을 구경하게 되는 화소 등을 통해 바리공주가 신이한 공간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세경본풀이>에서도 자청비는 사랑을 위하여 천신의 아들인 문도령이 존재하는 천상으로 이동한다 자청비는 문도령의 부모에게 시험을 받기는 하나 그것은 머느리 자격을 묻는 시험일 뿐이지 인간에 대한 경계는 아니다 즉 우리의 무속신화에서는 신과 인간의 시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소통되는 공간이다 신이 인간의 세계로 이동할 수 있듯이 인간도 신의 세계에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이처럼 신과 인간이 함께 하는 시공간은 신과 인간의 질서와 체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체 무속신화의 신과 인간의 질서와 체계인 것이다

나. 신과 인간의 관계

무속신화에 드러나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세계의 다른 신화와 비교해볼 때 가장 다른 특성을 가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이 바라보는 인간과 인간이 희망하는 신의 모습은 비단 창세신화 속에만 드러난 특성은 아니다 이 특성은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특수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창세신화에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몇 가지 물음에 대하여 답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화소가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처음으로 신과 인간이 만나 관계를 맺게 되는 화소는 천지왕이 지상으로 하강하여 지상국 부인과 결연하는 만남이다. 이러한 천지결연담은 <제석본풀이>, <단군신화>, <주몽신화> 등에서 볼 수 있는 화소로 천상의 존재인 남성과 지상의 존재인 여성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 그러나 천지왕과 지상국 부인의 결연담은 다른 천지결연담과는 다른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제석본풀이> 등에서의 결연담은 부부 1세대의 문제가 전체 서사의 중심이나 <창세신화> 속의 천지왕과 지상국 부인의 결연담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2세대인 대별왕과 소별왕이 서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인간존재의 물음에 대한 자성이며 신과의 수평적인 관계성을 상징해 주고 있다

그리고 무속에서는 저승의 삶이 이승의 삶의 연장선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내세관과도 연결된 것으로 이승과 저승의 구도를 살피는 것은 창세신화의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세차지 경쟁 화소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세차지 경쟁의 화소는 주체자가 다를 뿐 본토 지역과 제주도 지역 공통에서 볼 수 있는 화소로 경쟁하는 모습 속에서 신들이 바라보는 이

승과 저승의 모습과 앞으로의 이승과 저승의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짐작케 하는 화소로는 수명장자 징치담이 있다 수명장자 징치담은 처음으로 신이 인간을 징치하는 내용으로 보기 드문 화소이다 대부분 우리의 무속 신들은 인간을 보살펴주고 보호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수명장자의 징치담은 매우 의미있는 화소가 된다 장자풀이에서도 장자의 모습은 수명장자처럼 부도덕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본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수명까지 연장받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명 장자의 징치담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살피는데 연구해야 할 화소가 된다

1) 천지결연담

천상의 신성한 존재의 남성과 지상의 특별한 존재의 여성이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천지결연담은 의미가 있는 화소인 만큼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신화에는 천지개벽에 관한 신화가 있듯이 그 후 그 분리되어 버린 천지를 재결합해주는 천지결합신화가 있다⁶⁷⁾라는 논의도 있었다 또 천지왕이 지상부인과 동침하고 두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천지접합으로 만물이 생성함을 설화화한 것이고 그 후 천지왕이 다시 승천한 것은 천지분리로 보기도 했다.⁶⁸⁾ 결국 대부분의 논의가 하늘과 땅의 화합으로 보고 있고 천부지모라는 단어가 생성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적인 입장으로만 살펴보면 여러 의미를 상징하게 된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인데 반해 우리의 신과 인간의 관계 소통이 되는 수평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천지왕과 총명부인이 대등한 관계로 부부의 연을 맺고 있고 신과 인간의 관계를 뛰어넘어 각자를 다른 세계의 존재로만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또한 천지왕과 지상국 부인의 만남은 일월복수를 조정하기 위한 필연적인 만남으로 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두 존재의 결연보다는 대별왕과 소별왕의 존재가 전체 서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천지왕이 직접 수명장자를 징치하지 않고 신과 인간의 결합체인 대별왕과 소별왕이 인세를 조정하는 첫 번째 존재가 되

67) 김준기, 「신모신화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p.153

68)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p.324

는 것이다. 그래서 부조리한 세상을 조정하는 존재는 신과 인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2세대에게 맡겨진다. 이들의 존재는 신성함을 지니고는 있지만 신과 인간의 양면을 지닌 존재로 신이면서 인간이기도 한 것이다. 즉 인간을 정치하는 것은 신의 존재인 천지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신과 인간의 양면적 속성을 지닌 대별왕과 소별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절대권력으로 신들의 관계를 조정하고 인간세계의 질서를 주관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우리의 무속신은 인간과 함께 세상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존재여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세상을 조정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좀더 인세에서 벌여지고 있는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며 인간의 시조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보살피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앞의 천지개벽 화소가 카오스인 우주를 코스모스로의 우주 생성을 의미하게 된다면, 천지왕과 지상부인의 결연은 부조리로 가득찼던 카오스상태의 인류를 코스모스의 상태의 인류로 만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발전은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얻은 결과물이 된다.

이러한 관계는 동화 <소별왕 대별왕>에서 다음과 같이 형상화되어 있다.

- ㉠ 천지왕과 총명부인의 결연
- ㉡ 대별왕과 소별왕의 탄생
- ㉢ 천지왕과 두 아들의 만남
- ㉣ 대별왕과 소별왕의 일월 조정
- ㉤ 대별왕과 소별왕의 인세차지 경쟁
- ㉥ 이승을 차지한 소별왕이 수명장자를 정치
- ㉦ 대별왕은 저승을 차지

재창조된 동화에서도 대별왕과 소별왕은 신과 인간의 조화의 상징적 존재가 된다. 전지전능한 신이 인세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신이면서도 인간이 존재가 인세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즉 무속신화의 신은 인간을 일방적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신인 아버지와 인간인 어머니를 둔 대별왕과 소별왕이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것은 천지개벽으로 생겨난 세상이 신과 인간의 조화로 질서를 잡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천지결연

담은 신과 인간의 질서와 체계를 형상화한 화소로 무속신화만의 특수한 가치관인 것이다 따라서 천지왕과 총명부인의 결연은 신과 인간의 조화로 세상을 코스모스로 만들어 가는 의미를 가진다 문학적 재창조에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야 하는 화소이다

2) 인세차지 경쟁

본토에서의 미륵과 석가 또는 제주도에서의 대별왕과 소별왕이 인세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경쟁에는 꽃피우기 화소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경쟁부분의 화소는 다음과 같다 69)

가. 북부지역

* 미륵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석가가 경쟁자로 나타난다

<김쌍돌이본>

- ① 동해 중에 병에 줄을 달고 끓여지지 않는 사람이 이기기로 했는데, 미륵이 이겼다
- ② 성천강 여름에 강을 얼리기로 했는데, 미륵이 이겼다
- ③ 한방에 누워서 잠을 자며 각기 모란꽃을 피우기로 했는데 석가가 미륵의 무릎에 핀 모란꽃을 훔쳐 꺾어서 자기 무릎에 꽃아 이겼다

<전명수본>

- ① 병깨어 술이 공중에 떠 있게 하기를 해서 미륵이 이겼으나 석가가 다르게 해석했다.
- ② 낮가리 달걀 가리기를 해서 미륵이 이겼으나 석가가 다르게 해석했다.
- ③ 잠자기 내기 쌍을 해서 석가가 미륵님의 무릎에 꽃을 훔쳐 이겼다.

<강춘옥본>

69) 김헌선, 『한국의 창세 신화』, 길벗, 1994.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화소정리를 했음을 밝힌다.

- ① 신선장기(신선바둑) 내기에서 석가가 이겼다
- ② 배선유승전법 내기에서 석가가 이겼다
- ③ 신선잠자기 내기를 해서 석가가 미륵님의 꽃을 꺾어 와서 이겼다

<정운학본>

- ① 석가열이 미륵님에게 세상 배포를 다스리기 위해 잠자며 꽃피우기 내기를 제안해서 미륵님의 무릎에 핀 꽃을 가져와 이기게 된다

나 동해안지역

- * 미륵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석가가 경쟁자로 나타난다

<권순녀본>

- ① 석달 열흘 잠을 자며 꽃피우기 내기를 해 시준님이 미륵님의 꽃을 훔쳐 이기게 된다

<박용녀본>

- ① 내기 잠을 자서 석가가 미륵님의 꽃을 훔쳐 이기게 된다

<최음전본>

- ① 내기 잠을 자서 미륵님의 꽃을 훔쳐 이기게 된다

다 제주도지역

- * 창조주인 아버지 천지왕의 아들들인 대별왕과 소별왕이 인세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된다

<정주병본>

- ① 대별왕이 수수께끼를 제안해서 소별왕이 답하나 대별왕이 반문하여 이긴다.
- ② 꽃씨를 받아서 꽃피우기 내기를 하나 대별왕의 꽃이 번성하여 이긴다.
- ③ 잠 오래자기 시험에서 소별왕이 대별왕의 꽃과 바꾸어 이긴다.

<문창헌본>

- ① 소별왕이 극락세계 구경을 위해 대별왕과 수수께끼 내기를 해서 이기게 되자 함께 구경하게 된다.
- ② 천지왕이 대별왕에게 ‘인간정치’를, 소별왕에게는 ‘제향정치’를 하라고 시키나 소별왕이 이의의 제기하고 꽃피우기 시합을 한다 그 결과 소별왕이 대별왕의 꽃과 바꿔치기를 해서 인간정치를 하게 된다

<박봉춘본>

- ① 천지왕이 대별왕과 소별왕에게 은대야에 꽃을 심어서 잘되는 쪽이 인간을 차지하고 안되는 쪽이 저승을 차지하게 하자 소별왕이 대별왕의 꽃과 바꿔서 이긴다
- ② 대별왕이 인정하지 않자 소별왕이 수수께끼를 제안하고 다시 이기게 된다 그리고 소별왕이 인간을 차지해서 수명장자를 징치한다.

지역에 따른 이본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화소의 특징이 있고 그에 대한 의미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첫째, 인간을 다스리는 직능은 신들에게 탐나는 매력적인 일이 되며 그만큼 능력을 지닌 신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점이다 북부지역·동해안지역에서는 인세를 차지한 기존의 세력자에게 경쟁자가 대결을 청하고 있었다 또한 제주도지역에서도 창세신을 대신한 존재들이 인세차지라는 중요한 문제를 두고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결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신적인 존재 모두가 인세를 차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실히 내비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신들이 인간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던 모습의 반영이다

둘째, 우리의 무속 신들은 인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평화적인 내기로 대결을 하고 있었다. 형제권이 인간세계 지배권 때문에 폭력이 이루어지는 그리스 신화와는 달리 미륵과 석가 또는 대별왕과 소별왕은 여름에 강 얼리기, 꽃피우기 등의 화소로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신에 대한 믿음은 평화적인 모습의 신인 것이다. 동양을 대표하는 중국의 신과 그리스 신들과는 대조되는 모습⁷⁰⁾으로 우리의

70) 양영수, 「제주와 중국 및 그리스 신화의 비교」, 『제주대동아시아 연구논총』 11집, 2000

신은 인간을 보살펴주고 돌보아 주는 것이 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무속신화가 제의되는 곳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우리는 신이 현실 속에 우리가 가진 고통과 아픔, 질병 등을 치유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악신에게까지 기도를 한다 악신도 정성껏 기도를 올리면 화 대신에 복을 준다는 가치관이 우리에게 깊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 민족들은 신들을 인간의 수호자와 같은 평화의 상징으로 수용하고 있다.

셋째, 꽃피우기 화소는 절대자로서 인간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화소이다 <강춘옥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세차지 경쟁의 화소에서는 경쟁자(석가, 소별왕)가 기존의 세력자(미륵, 대별왕)에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내기에서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내기인 꽃피우기 내기에 이긴 신이 인세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만큼 앞의 두 화소들보다는 꽃피우기 화소가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꽃피우기 화소는 그 자체가 생명력을 관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꽃을 키운다는 것은 사람을 키운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히 주목되는 꽃피우기 화소는 <정운학본> 등에 있는 잠을 자며 꽃을 피우는 내기의 화소와 <박봉춘본>의 은대야 꽃을 피우는 화소이다 잠을 자며 꽃을 피운다는 것은 인간은 할 수 없는 신이한 능력으로 신성성을 보여주게 된다 잠을 자면서도 생명력을 관장하는 것이 신성성만을 묻게 되는 화소였다면, 경쟁자와 세력자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주체자와 경쟁자 모두가 신의 아들들이라는 공평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세력자의 꽃은 번성하고 경쟁자의 꽃은 시드는 결과가 생긴다 정황을 볼 때 신이한 능력보다는 다른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화소인 것이 된다. 즉 그것은 인세를 다스릴만한 신격을 확인하게 되는 시험이었다. 미륵 또는 대별왕이 잠을 자며 꽃을 번성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상태가 평화롭고 자비롭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반면 석가와 소별왕은 욕심과 질투심, 자만심 등으로 꽃을 시들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인세를 다스리는 신으로의 최대 능력은 어떤 신성한 능력보다도 평화롭고 자비로운 마음의

이 논문에는 무속신화가 인간사의 성패와 길흉화복을 결정하는 신들이 신화형성자인 무인들의 관심대상이었다면, 그리스 신화는 천재적 신화작가들의 상상력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신이 필요 없어서 대신 냉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쓰였다고 했다. 그리고 중국 신화에서 신들의 존재의의는 국가의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인간세계의 질서 형성을 완수하는 신들로 창안했다고 밝혔다.

상태인 것이다

그리고 은대야에 꽃을 피운다는 것은 흙 위에서 뿌리를 두고 자라나는 꽃에게는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 즉 꽃의 입장에서 보면 은대야는 난점이 많은 공간이 되고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살아가기 힘든 부정적인 환경에 대한 상징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다음에 나올 일월 조정에서처럼 해가 둘이고 달이 두 개인 부조리한 환경을 상징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을 보호해주는 것이 신의 역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의 두 화소가 신의 능력과 지혜 등을 시험해보는 것이라면 꽃피우기 화소는 생명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자애로운 신격을 지녔는가에 대한 시험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이 바라는 신의 모습은 절대적이고 신이한 능력이 뛰어난 신보다는 인간들의 삶을 이해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신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는 그렇다면 꽃피우기 내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승리를 한 경쟁자가 인세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모든 이본에서의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사악한 승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게 되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행위를 벌여야 통치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삶에 대한 적극성을 인정하는 태도로 보기도 했다 71)

가능성이 있는 논의들이기는 하지만 이보다는 신들과 인간의 삶에 관한 관계성에 의한 결과로 보여 진다. 예를 들면, 반대로 미륵과 대별왕이 인세를 차지하는 것으로 창세신화가 끝이 난다면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된다. 완전한 평화와 행복이 가능한 세상은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여전히 사람들의 삶 속에 고통과 질병과 불행이 함께 공존한다. 만약 완벽한 신격을 지닌 신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라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미륵은 창세신이 되며 대별왕은 창세신인 천지왕의 선택을 받은 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처럼 욕심과 자만심이 있는 석가와 소별왕이 지배한 지금의 인세는 사람들에게 다음 세계에 대한 희망을 주는 세상이 된다 그래서 불완전한 이승에서의 삶은 공명정대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저승이라는 또 다른 세계의 공간을 창조시켰다 우리 민족만큼 죽음의 의미를 새로

71) 김현선, 앞의 책, p 147

운 시작으로 보는 민족도 보기 드물다 옛말에 죽은 사람의 상황을 두고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의 무의식 세계에는 저승의 의미를 본래적인 공간 또는 희망이 있는 삶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수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완벽한 신인 미륵 또는 대별왕이 관리하는 저승은 우리 민족에게 긍정적인 내세관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것 또한 현실에서의 불만족한 삶에 대한 무속신화의 치료적 기능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무가를 전승하는 집단은 가난하고 약한 위치에 있는 민중으로 창세신화는 신에 대한 기대치가 큰 우리 민족의 세계관이 담긴 것이다

결국 우리 민족이 가지는 무속신들에 대한 기대는 문학적으로도 재창조 가능성을 열어 주게 되었다 옛날부터 무궁무진한 작품소재가 되어 온 그리스 신화의 가치는 신들간의 투쟁과 긴장, 역동적인 변화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에 무속 신들처럼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자비로운 신들, 자기자신의 내면적이고 자기 실현적인 욕구를 갖지 못한 신들은 평면적이고 단선적인 성격이라서 예술 창작의 모티프로서는 활용가치가 제한적이었다 72)

그러나 미륵과 대별왕이 아닌 석가와 소별왕이 인세를 차지하게 된 화소는 우리의 무속 신화의 현대적 재창조에 대한 또 하나의 가능성이 된다. 또한 우리 민족만의 이승과 저승의 삶에 대한 가치관의 반영이기도 하다

인세차지경쟁이 동화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재창조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별이의 꽃은 크고 아름답게 자란 반면에, 소별이의 꽃은 키가 작고 꽃잎도 볼품 없었습니다.

“자 그럼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인간세상을 말겠다.”

대별이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별이는 자기가 인간세상을 말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별 이가 보기에 대별이는 지나치게 너그러워서 수명장자 같은 악당을 다스리기엔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소별이는 궁리 끝에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형님, 꽃을 잘 키우는 것도 좋지만 세상을 잘 다스리려면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수수께끼 시합으로 다시 결정합시다”

72) 양영수, 앞의 책, pp 166-167

· (중략)

대별이는 억울하긴 했지만 도리가 없었습니다

“좋다. 내가 저승세계를 맡을 테니 네가 인간세상을 맡아라 아무쪼록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바란다”⁷³⁾

동화에서는 꽃피우기 내기를 먼저 한 후에 수수께끼 내기를 해서 소별왕이 인세를 차지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소별왕의 말에도 나와 있지만 생명력을 관장하는 힘보다도 오히려 지혜가 인세를 다스리는 능력의 초점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창세 신화에서 맨 마지막의 내기인 꽃피우기 내기에 따라 인세를 차지하게 되는 화소와는 대조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우리 민족이 신의 전능한 힘보다도 인간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신의 인품에 기대를 한 모습과 다른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속신화의 신들은 그리스 신화의 신들처럼 전능한 힘을 가진 신이기보다는 따뜻한 품성을 지닌 신의 모습에 더욱 가깝다 그래서 따뜻한 품성을 지닌 무속신들은 엄격하고 절대적인 모습이 아닌 대신에 자애롭고 인간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꽃피우기 화소의 경우 ‘잠을 자며 꽃 피우기’와 ‘은대야에 꽃 피우기’와 같은 화소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즉 인세차지 경쟁에서 중심 화소는 신들의 내면적인 세계이다 사람들은 신들에게서 신성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평안케 할 수 있는 신을 원하는 모습인 것이다

3) 수명장자 징치담

수명장자 징치담은 부자인 수명장자가 악행을 저지르자 천지왕과 대별왕, 소별왕이 벌을 내리는 화소이다. 이것은 처음으로 신이 인간을 응징하는 화소로 평화적이고 온화한 무속신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화소가 된다

그리스 신화의 인간들이 벌을 받거나 징치 당하는 경우는 신전을 돌보지 않는 다거나 신들을 모욕했을 경우가 된다 그러나 수명장자가 벌을 받고 징치 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무속신화에서는 악인이 인간세상을 어지럽히고 인간을 괴롭히는 행위 때문에 징치당하는 것이

73) 문명식, 앞의 책, p 53.

다. 또한 이 정치는 단 한번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천지왕은 수명장자에게 뉘우칠 한번의 기회를 준 후 수명장자가 뉘우침의 여지가 없어 보이자 대별왕과 소별왕을 통해서 정치하고 있다 천지왕은 신의 존재로 직접 인간세계의 질서를 잡아가지 않는다 대신 천지왕은 지상의 여인과 결연하여 얻은 아들들인 대별왕과 소별왕을 통해서 수명장자를 정치한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신이면서 인간이기도 한 존재이다 신인 아버지와 인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무속신화에서는 대별왕과 소별왕이란 존재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세계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세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이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동화 <소별왕 대별왕>에서도 그대로 그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수명장자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서 재물을 많이 모았습니다 농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었고, 커다란 창고 속에는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또한 수명장자는 산에서 개, 말, 소를 각각 아홉 마리씩 잡아와 키웠습니다 이 짐승들은 주인을 닮아 하나같이 사납고 잔인했습니다.

... (중략) ...

천지왕은 자세를 가다듬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죄로 봐서는 능지처참해야 할 것이로되, 네가 뉘우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다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니 당장 창고에 쌓인 곡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앞으로는 착한 일만 하고 살아라. 또 못된 짓을 하면 그 두건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74)

천지왕이 수명장자에게 뉘우칠 기회를 주는 부분으로 동화에서는 이 화소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만, 두건이란 화소를 이용해 수명장자가 다시 죄를 저지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차단을 했다. 어쩌든 본질적으로 신이 인간에게 관용을 베푸는 모습은 그대로 형상화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세상의 질서를 신이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모습이 아니고 인간의 몫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신과 인간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발로인 것이다

지금까지 <창세신화>를 통해 살펴 본 신과 인간의 질서와 체계는 무속신화 전

74) 문명식, 앞의 책, pp 30-31

체의 질서와 체계이기도 했다 <창세신화>는 가장 원초적인 신화로 다른 무속신화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반영을 위한 원형신화이기 때문이다

천지개벽은 신과 인간의 세계가 창조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린 세계가 됨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래서 신이 천상의 존재인 것처럼 인간도 천상에서 내려온다 결국 신과 인간은 서로 같은 원형에서 시작이 되었고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과 인간의 관계는 <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 등의 다른 무속신화에서도 그대로 투영되어 서사된다 무속 신과 인간 공존하는 시공간을 함께 지니는 것은 신과 인간의 관계로 그들의 질서와 체계가 된다 즉 신이 인간보다 전능한 능력을 지닌 존재이기는 하나, 그것이 인간보다 상위의 존재인 것은 아니다 신은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의 하나로 삶에서 희망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신과 인간은 시공간뿐만 아니라 서로의 본질까지도 오갈 수 있는 존재이고, 그것은 본풀이라는 무속신화만의 독특한 형식으로 형상화 된 것이고 신과 인간의 질서와 체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신화>를 통해서 살펴 본 신과 인간의 질서와 체계는 우리 무속신화만의 가치관의 배경이 된다 우리 민족에게 무속 신은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신이 아니다 무속 신들은 인간과 시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존재로 인간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인간의 또 다른 형상이다 그래서 무속 신들은 현실적인 삶 속에서 실제적인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는 신이었고 우리 민족은 신을 두려워하거나 경배하기 보다는 삶의 고통들을 함께 나누고 위로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4.2.2 바리공주 : 서사적 구성의 논리

<바리공주>의 연구는 광범위한 채록의 단계와 수많은 선행 연구를 통하여 현재에는 문학적인 재창조가 가장 활발한 무속신화이다. 현재까지 채록·발표된 서사무가 바리공주는 모두 40편에 달하고 사령제 무의에서 구연되는 신화다. 전승지역은 대략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지만 제주도와 충청도·평안도·황해도 등에서는 전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⁵⁾ 각 편은 전승지역에 따라 「서울본」, 「속

75) 장석환, 「바리공주 무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pp 11-13

초본」, 「양양본」, 「명주본」, 「영일본」, 「김해본」이 있다 76)

모든 전승본의 공통적인 중심화소는 바리공주의 구약여행으로 서사적 구성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논의의 층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구약여행과정에서 망자천도의 화소와 함께 결과적으로 오구신이 된 바리공주의 신적 역할을 중심으로 본 연구가 있었다 77) 그리고 바리공주가 여성이라는 점을 주목하여 여성의식과 연관시킨 연구도 있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와 그것을 극복하는 여성 영웅의 모습이다 78) 이외에도 바리공주의 구약 여행을 효라는 윤리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행위로 바라본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바리데기가 생명의 꽃과 약물을 얻는 과정에 대해 무가에서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외부로부터 받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존재론적으로 읽을 때 그것은 바리데기에게 일어난 존재론적 전환이라는 대 사건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도 있었다 79) 즉 바리공주의 구약여행을 사회의 가치관에 맞춘 서사적 구성으로 보는 것보다는 진정한 자아 찾기의 과정으로 바라본 것이다.

바리공주의 서사적 구성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간적인 서사적 구성은 바리공주의 개인적인 일대기이기도 하다. 바리공주를 유기한 부모의 존재나 혼인한 동수자 또는 무장승 등은 주변 인물일 뿐이고 모든 사건은 바리공주의 인생 구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영웅의 일대기적인 모습을 갖추고는 있으나 바리공주의 출생부터 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시간적인

76) 이경하, 「〈바리공주〉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특징에 관한 비교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31.

77) 최길성, 「〈바리공주〉의 신화의 구조 분석」, 『한국 무속의 연구』, 서울·아세아 문화사, 1990.

78) 이경하, 앞의 논문.

장장식, 「신화를 통해 본 여성의 임무와 그 의미」, 『민속학연구』 3집, 1996.

강은혜, 「바리공주 형성의 신화 심리학적 두 원리」, 『계명어문학』 1집, 계명어문학회, 1984.

——, 「한국 신화와 여성주의 문학회론」, 『한국학 논집』 17집, 계명대학교, 1990.

김영숙, 「여성중심시각에서 본 바리공주」, 『페미니즘문학회론』, 서울·한국문화사, 1996.

79) 강진옥, 「한국 민속에 나타난 여성상의 변모양상」, 『한국민속학』 27집, 한국민속학회, 1995.

흐름에 따른 서사 구조는 신화로서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바리공주의 삶은 그녀 개인의 삶이기보다는 봉건적 사회를 살아갔던 여성의 자화상이고 또한 우리 민족의 삶이 투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바리공주의 출생에서부터 좌절, 고난, 극복, 신으로의 좌절까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대부분의 평범한 민중들은 삶의 질곡으로 인해 태어남 자체가 업보의 시작이라는 가치관이었다. 출생서부터 시작되는 일대기적 구성 속에서 사람들은 바리공주에게서 자신을 표상한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바리공주를 여성으로 국한하게 되면 바리공주의 시련은 개인의 시련이 더 이상 아니고 여성의 시련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많은 이본들 중에 의미가 있는 공통적인 화소들을 선별하고 서사 단락을 작품 전체의 주제의식과 연결하여 일대기적인 서사적 구성에 주목하여 현대적인 재창조의 방향성에 관하여 논하기로 한다.⁸⁰⁾ <바리공주>의 서사 구성의 방안은 다른 무속신화의 재창조를 위한 하나의 기본 사례로서 그 의미를 들 수 있다.

가. 바리공주의 서사 구성의 이해

1) 탄생, 고난의 시작

바리공주는 국왕의 딸로서 지상에서는 최고의 신분으로 태어난다. 또 다른 그녀의 신분은 후대를 이을 왕자가 없는 왕조에 공주란 최하의 신분으로 태어난다. 상반되는 두 신분의 차이에서 사회적인 신분보다는 생물학적인 신분이 우위가 되어 결국 바리공주는 부모에게서 유기가 된다. 전체의 공통적인 서사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바리공주의 탄생. 국왕이 결혼을 하여 여섯 딸을 낳고 일곱 번째 딸로 바리공주를 낳는다.

80) 본 논문에서는 <바리공주>에 서사단락의 의미와 그에 따른 재창조 방향성을 찾기 위함이므로 이본에 따른 인물들의 명칭과 노동 화소 차이와 유·무 등은 논지에서 생략하도록 하겠다.

- ② 부모와의 이별: 바리공주는 버려지고 구조자에 의해서 양육되어진다
- ③ 부모와의 재회. 부모는 병이 나고 약물을 구해야 넣을 수 있지만 집에서 기른 여섯 딸들은 핑계를 대고 약을 구하지 않으나 다시 찾은 바리공주는 약을 구하러 여행길에 오른다
- ④ 바리공주의 시련. 약물을 구하러 가는 도중에 바리공주는 몇 가지 주어진 과업을 해결하게 된다
- ⑤ 바리공주의 저승세계. 바리공주는 지옥에 갇힌 죄인들을 구제해 주고 약물을 지키는 관리자와 혼인을 하여 아들을 낳아 준다.
- ⑥ 무신이 된 바리공주 바리공주가 약물로 왕을 살려내고 그 공으로 오구신이 된다

이처럼 바리공주가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버려짐이다

‘바리공주’ 또는 ‘바리데기’는 버려진 공주란 의미의 이름이다 버려진다는 것은 피동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자아를 갖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좀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타자에 의하여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탄생에서의 피동적인 위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운명이다 특히 여성이 겪은 당 시대에 사회적인 제도로 인한 생물학적인 성의 차별은 버려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특히, 기아모티프는 영웅의 일생을 다루는 서사문학에서 빠지지 않는 주요한 모티프이기도 하나 여기에서는 통과 의례적 의미 이외에도 ‘여성’이라는 생득적 신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⁸¹⁾ 가부장제 사회에서 <세경본풀이>의 자칭비가 백 근 중에 한 근이 모자라 태어난 존재로 형상화된 것처럼 바리공주도 계급적 신분은 공주라는 상위 계층이나 성적으로는 남성보다 모자란 여성이란 이유로 버려지게 된다

그리고 버려졌다는 피동적인 의미는 자아를 지닌 온전한 인격체가 아직은 아님을 의미한다. 즉 부모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은 의지와는 무관한 피동적인 상황을 말하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이때는 아직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는 어렵다. 하나의 인격체가 성립된다는 것은 많은 세월동안 경험을 쌓고 그 속에서 주체적인 자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81) 이경하, 앞의 글, p.31.

따라서 바리공주는 구약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온전한 인간도 여성도 아닌 인격체로 피동적인 존재를 상징한다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을 통해 인격체로 성립되듯이 바리공주도 구약여행이란 과정을 통해 주체적인 자아를 지닌 인간이 되고 온전한 오구신이 된다

2) 구약여행 삶의 과정

구약여행의 시작은 부모가 병이 들어 약물을 구해야 한다는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동안의 논의대로 자신을 버린 부모를 위해 구약 여행을 떠나는 것이 효 사상에 기인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유난히도 효 사상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여행을 윤리적인 범주로서 틀 안에 놓은 임의의 해석일 수도 있다 오히려 서사적 구성의 흐름상 구약여행은 한 인간으로서 치뤄야 할 삶의 과정을 상징한다 인간은 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게 된다 사람들은 방 안에서 홀로 살아 갈 수가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스스로가 열린 세계로 나와 수많은 갈등과 부딪치며 성숙하게 되어간다. 마찬가지로 바리공주가 구약여행을 통해서 만나는 여러 유형의 만남도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며 맺게 되는 인연인 것이다

특히, 그녀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과업 중에 지옥의 사람들을 구조하게 되는 것은 바리공주가 스스로 선택한 삶의 하나이다 이것은 세계의 갈등을 자아의 갈등으로 승화시켜 스스로 극복하는 인생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버려졌던 존재의 바리공주는 구약여행을 통해서 스스로가 열린 세계로 나와 자신의 버려진 자아를 되찾게 된다

그래서 바리공주의 주변환경들은 있을 법한 구도로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부모는 낳고 기른 여섯 딸들에게 먼저 약물을 구하러 오기를 기대해 본다. 여섯 딸들은 이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출가외인이 되어 또 다른 타자에 맞추는 삶을 살고 있다. 그에 따라 출가외인 전의 부모를 위한 도리를 무시하고 있다. 여섯 딸들은 스스로를 주체로 보지 않고 자신을 남성의 입장에서 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⁸²⁾ 가족이란 테두리 안에서 관계 지향적이고 한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바리공주는 자아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세계로 나아가는데 주저없이 뛰어든다 다음과 같다

어머니요 어머니요 제가 가리다 하지요
어머니는 못 간다 못 간다 고물고물하는 핏땹이를 산천에다가 내다 버려서
십오년을 산에서 커서 집이라고 돌아왔는데 어찌 너를 또 버리겠나
못간다 못간다 하니 어머니요 어머니요 아버지가 저 때문에
얼은 병으로 제가 안고치면 어느 누가 아버지 병을 고치오리까⁸³⁾

바리공주가 구약여행을 떠나는 것은 스스로가 윤리적인 가치관 아래 내린 판단으로 처음으로 내린 결정이다 이는 바리공주가 버려진 공주라는 피동적인 존재에서 주체적인 자아를 갖게 되는 인격체로의 시작이 된다

앞의 언니들의 타자적인 삶의 모습은 우리가 사회에서 강요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다 여전히 언니들은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피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 출가 전에는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삶을 살았고 출가 후에는 남편의 가치관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바리공주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체가 있는 삶에 대한 가능성이다 언니들과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리공주는 세상으로 나오고 있다. 물론, 성장과정에서 언니들과는 다른 환경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바리공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태어났다는 차이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언니들의 모습이 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 장치적인 도구가 되고 바리공주를 통해서 내면에 존재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구약여행이 사람들의 삶에 평범한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은 바리공주가 시험을 당하는 화소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인세차지 경쟁을 하기 위해 수수께끼를 하고 잠을 자며 꽃피우기 내기를 한다 자청비는 며느리로 인정을 받기 위해 칼 선다리를 건너게 된다. 이처럼 신으로 좌정받게 되는 인간이 시험을 당하는 화소는 대부분이 평범한 인간은 할

82) 전영숙, 앞의 논문, p.125.

83) 김진영·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속초 탁순동본」, 민속원, p.206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런데 바리공주가 시험받는 화소는 노동의 화소가 대부분으로
인세에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들이다 다음과 같다 84)

- 노동화소: 빨래를 씻어 주거나, 밭을 갈아주거나, 밭을 매주는 일을 해주고
길 안내를 받는다 (총 10개본)⁸⁵⁾
- 기타화소: 죄상을 대신 알아다주거나, 귀신을 물리치거나, 신신 용왕의 일을
해준다. (총 4개본)⁸⁶⁾

구체적으로 노동 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주눈물이	흘러
향수와 같이	피었나야
운향안개	깊어지고
해가다	끝나니
백설같이	숫구멍도
하야지고	빨래도
백설같이	하얗기
빨래지니 ⁸⁷⁾	

이처럼 바리공주에게 주어지는 과업은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노동과 오
구신으로서의 자질을 살피기 위한 노동으로 나뉘어진다. 후자의 경우는 공간에서
신기한 능력을 시험하는 화소로 대부분의 신화에서 볼 수 있는 성격의 과업이다.
그러나 전자의 노동들은 평범한 인간들이 평생을 과업처럼 해결하는 것으로 이것
은 신 이전에 자아를 찾아가는 인간 바리공주에게 주어지는 과업인 것이다.

84)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민속원, 1998.

아래의 이본별 화소 정리는 이 연구에 의존한 것이 있다.

85) <김해 강분이본>, <안동 송희식본>, <속초 탁순동본>, <양양 지경숙본>, <명주
신석남본>, <강릉 송명희본>, <울주 유일순본>, <영일 김복순본>, <동래 김경남본>
>, <영일 김석출본>

86) <홍원 지금철본>, <함흥 이고분본>, <고흥 오복례본>, <영암 정화점본>

87) <속양본>, p.533.

바리공주는 삶의 과정으로 육체적 노동의 과업을 해결하고 무장승 또는 동수자를 만나게 된다 즉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두 존재의 결연은 일반 다른 문학에서처럼 낭만적인 아름다운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삶에 있어 서로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이 발로가 되어 결연이 성립되고 있다. 즉 바리공주는 부모를 살릴 약수를 구하기 위함이고 무장승 또는 동수자는 약수를 지키며 혼자 외롭게 살아서 또는 천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결연을 하고 있다

그러나 두 존재의 결연이 순수한 사랑을 바탕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으나 불완전한 두 존재는 가정을 만들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바리공주는 약수만을 가지고 부모에게 돌아가지 않고 가족과 함께 간다. 그리고 자신이 가정을 이룬 것을 부모에게 소개하고 자신의 가정을 인정케 한다. 그것은 그녀뿐만 아니라 동수자와 아들들까지도 신으로 함께 좌정하는 모습에서 다시 확인된다

여보시오 당신이 서천서역국을 갈 수가 싶으다면 나의 소청을 들어주소
나와 백년계약 맺은 후에 이승에 인간의 시받이 아들 삼형제 낳아주면
서천서역국을 일러주리다 하다 문이 귀해서 청실홍실 띄어놓고
백년계약을 맺는구나 아들 삼형제 낳았더니만은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삼에 삼년이 지나니 아들이 참
삼신지왕님이 돌보셨는지 마 연년생으로 하나하나씩 낳았네
아들 삼태성이를 놓아 주었으니 이제는 서천서역국 갈 길을 일러주소
이리하여 동수자는 나야 인제 상제의 어명대로 다 했으니
나도 갈 시가 오고 때가 왔나이다 열쇠 고리를 하나 주는구나
.. ..(중략).....

임아 임아 우리 임아 일심 한강에 우리 임아 하룻밤 정을 맺어도 상부상철
.에 이별하오 아들 삼형제 버리고 백년 살 알고서 ... 88)

결국, 바리공주는 주체적인 자아의 존재로 발전하게 되면서 일상계에서 비일상계로 이동하게 되었고 약수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비일상계는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갈 수 없는 곳으로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바리공주는 이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평생 가질 수 있는 인연을 맺게 된다 바리공주를 돕는 긍정적

88) <강릉 송명회본>, p.134

인 존재들인 구조자들과의 만남과 반대로 바리공주가 구조자가 되어 도움을 주게 되는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주체가 되는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다. 이 세 종류의 만남은 바리공주가 약물을 구하고 아버지를 살려내어 오구신으로 좌정하게까지 만든 것이다

즉 바리공주의 구약여행은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고행과도 같은 삶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또 바리공주를 완성된 존재로 만들어 신으로 좌정하게 한 것이다.

3) 오구신이 된 바리 공주: 삶의 완성

죽은 영혼을 인도하는 오구신은 삶과 죽음을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바라보는 우리 민족의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말해 주는 신이다. 우리 민족은 죽음의 의미를 부정적이거나 어둠이 아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승으로 가게 되었을 때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한다.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닌 원래의 세계로 되돌아갔다는 사고관이 담겨 있는 말인 것이다

바리공주가 오구신으로 좌정하는 것은 주체적인 자아를 갖게 된 완전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바리공주 개인으로는 삶의 완성을 이루는 서사구조이고 우리 민족에게는 죽음이 삶의 연장성임을 이야기 해주는 서사가 된다

나. 문학적 재창조를 위한 서사적 구성의 방안

<바리공주>는 문학적 재창조가 많이 이루어졌던 무속신화로 그만큼 대중에게 가장 알려진 무속신화이기도 하다 그것은 <바리공주>가 우리 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신화이기도 하고 부모를 살리기 위한 바리공주의 행위가 효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인 윤리관을 담고 있어서 우리의 정서와 맞아서이다

<바리공주>가 무속 신화로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녀가 오구신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서사라고 보여진다 앞장에서 말한 대로 바리공주는 한 사람의 일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본이다. 그런데도 그녀가 오구신으로 좌정하게 되었던 것은 그녀의 구약여행에서 특별한 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제주도

를 제외한 전지역에 널리 분포된 <바리공주>가 오구신으로 좌정되는 ‘바리공주’에 초점을 둔 서사적 구성은 문학적 재창조를 위하여 연구해야 할 부분이 된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이본들 중⁸⁹⁾에 공통적인 화소를 근간으로 하여 오구신으로서 의미를 둘 수 있는 이본의 화소들을 선별적으로 선택하고, 현재의 삶에 동떨어진 가치관을 지닌 화소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버리기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많은 이본이 있고 지명도가 높은 서울·충청본과 동해안·경상도본의 서사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㉔ 중서부 지역

ㄱ. 서울본

<서울 문덕순본>, <서울 김종덕본>, <서울 배경재본>, <서울 최명덕본>, <서울 새우젓집본>, <서울 반송업본>, <서울 김대길본>, <인천 도정희본>, <인천 정영숙본>, <양주 조영자본>, <성남 장성만본>

ㄴ. 충청권

<평택 노재용본>, <천안 배명부분>, <공주 노재용본>

- 1) 바리공주 부모가 점의 결과를 무시하고 혼인을 한다
- 2) 바리공주 부모가 점대로 딸 여섯을 낳고 일곱번째 공주를 낳는다.
- 3) 바리공주가 버림을 받는다.
- 4) 석가여래가 함에서 바리공주를 발견한다.
- 5) 비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바리공주를 키우지만 바리공주는 부모를 그리워한다
- 6) 바리공주 부모가 병에 걸린다
- 7) 병에 필요한 약이 약수인 것을 알게 된다
- 8) 점을 쳐서 바리공주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 9) 바리공주가 부모를 만나 친부모인지를 확인한다.
- 10) 여섯딸들은 구약여행을 가지 않기 위해 핑계를 대고 거절한다

89) 김진영·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I, II』, 민속원, 1997
위에서 정리한 이본정리를 통하여 연구했음을 밝힌다.

- 11) 바리공주가 구약여행을 떠난다
 - 12) 바리공주는 원조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유용한 물건도 받는다
 - 13) 바리공주는 도중에 지옥에서 죄인들을 구제한다.
 - 14) 바리공주는 약수 지키는 이를 만나 대가를 치른다.
 - 15) 바리공주가 꿈을 꾸어 부모가 위독함을 알게 된다
 - 16) 바리공주가 돌아오는 길에 저승 가는 배들의 행렬을 보게 된다
 - 17) 바리공주가 시간이 늦어 벌써 상여가 나온다는 말을 듣게 된다
 - 18)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려낸다
 - 19) 바리공주의 남편이 대궐을 헐고 입시를 한다.
 - 20) 키를 재어 보고 바리공주와 남편이 천생연분임을 안다
 - 21) 바리공주와 다른 사람들도 공덕을 인정받는다
- (* 밑줄 친 서사는 그 지역본만의 특징이다.)

㉠ 동해안 경상도 지역

ㄱ. 동해안권

<양양 지경숙본>, <속초 신석남본>, <속초 탁순동본>, <명주 신석남본>, <강릉 송명회본>, <울주 유일순본>, <영일 김복순본>, <동래 김정남본>, <영일 김석출본>

ㄴ. 경상도권

<김해 강분이본>, <안동 송희식본>, <통영 박복개본>

- 1) 바리공주 부모가 혼인을 하다
- 2) 바리공주 부모가 연이어 딸을 낳고 일곱 번째도 공주를 낳는다.
- 3) 바리공주가 버림을 받는다
- 4) 구조자가 버려진 곳에서 공주를 구해낸다.
- 5) 양육자가 공주를 키운다.
- 6) 바리공주 부모가 병에 걸린다
- 7) 병에 필요한 약이 약수인 것을 알게 된다.
- 8) 바리공주가 부모를 만난다.

- 9) 여섯 딸들은 구약여행을 가지 않기 위해 핑계를 대고 거절한다
 - 10) 바리공주가 구약여행을 떠난다
 - 11) 바리공주는 원조자를 만나 도움을 받는다
 - 12) 바리공주는 도중에 과업을 해결한다
 - 13) 바리공주는 약수 지키는 이를 만난다
 - 14) 바리공주는 여자임이 탄로나고 약수를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른다.
 - 15) 바리공주가 약수탕을 다녀오고 도중에 도움을 받는다
 - 16) 바리공주는 언니들의 방해를 물리친다.
 - 17)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려낸다.
 - 18) 바리공주와 다른 사람들의 공덕이 인정받아진다.
- (* 밑줄 친 서사는 그 지역본만의 특징이다.)

위의 서사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바리공주의 탄생 -바리공주의 버려짐 -바리공주의 구약여행-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려냄 -바리공주가 신으로 좌정’이라는 기본적인 서사단락은 거의 동일한 순환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구약여행 과정에서 과업의 성질과 바리공주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의 갈등은 서사에 따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오구신으로 좌정된 바리공주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었다.

이러한 서사의 차이는 문학적인 재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바리공주>의 의미까지도 달라질 수 있게 된다. <한겨레 옛 이야기> 시리즈에 속한 <바리공주>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서사구조를 선별하여 새롭게 기획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겨레 옛 이야기 바리공주>

- 1) 오구왕과 길대부인 사이에 일곱번째 공주로 태어난 바리공주는 서해바다로 버려진다.
- 2) 비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바리공주를 발견하고 키우지만, 바리공주는 낳아준 부모를 그리워한다.
- 3) 그때 오구왕과 길대 부인은 중병에 걸려서 스님을 통해 저승세계의 약수만이

약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 4) 신하들과 여섯 딸들은 핑계를 대고 약수를 구하러 가지 않자, 오구왕은 바리공주를 찾게 된다
- 5) 부모를 만난 바리공주는 남장을 하고 구약여행을 떠난다
- 6) 구약여행 중 원조자(할아버지 밭을 대신 갈기, 할머니 빨래 해주기)를 만나 도움과 선물을 받고 황천바다로 간다
- 7) 바리공주는 지옥으로 쫓겨가는 영혼들을 만나 도와주게 된다
- 8) 동수자를 만나서 여자인 것이 들통나고, 혼인을 해 첫날밤을 보낸 후 약수와 꽃을 구해서 오구대왕에게 함께 간다
- 9) 다시 황천바다에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돕는다.
- 10) 바리공주와 동수자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구왕의 관이 나가고 있었다
- 11) 바리공주는 꽃과 약수로 오구왕을 살려낸다
- 12) 바리공주와 동수자는 아들 삼형제를 낳고 모두의 공덕이 인정받아진다

위의 동화로 재창조된 <바리공주>는 서울본과 동해안본이 서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8)의 동수자와의 혼인 부분에서는 새롭게 서사를 바꾸고 있다 즉 조합과 변형을 모두 이용한 서사구조를 가져 새로운 하나의 버전이 된 것이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탄생 (고난의 시작)

- 버림받은 바리공주
- 바다에 떠내려온 아이

바리공주가 출생하여 버리지는 화소는 전 지역에 공통적인 화소로 문학적으로 재창조된 동화책에도 ‘버림받은 바리공주’란 소제목으로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바리공주가 세상에 태어나 첫 번째로 겪게 되는 시련으로 그녀가 딸이기 때문에 버려진다는 부당한 이유도 모두가 동일하다

2) 두 번째: 구약여행 (삶의 과정)

- 다시 찾은 바리공주

- 마고할미의 꽃과 금방울
- 동대산의 동수자
- 약수를 구해 아버지 품으로

바리공주가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구약여행을 떠나게 된다 이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바리공주가 도움을 받는 구조자와의 만남과 반대로 그녀가 도움을 주게 되는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본에 따라 가장 많은 화소의 변이가 이루어진 서사부분으로 바리공주가 오구신으로 좌정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형상화된 부분이다. 특히, 구약여행은 전체 <바리공주> 서사의 신화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부분으로 어떤 화소들을 선별하는가에 따라 바리공주의 존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바리공주가 해결해 나가는 과업을 동화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ㄱ) 발갈기

하루는 발 옆을 지나는데, 머리가 새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발을 갈고 있었습니다 다 바리공주는 반가운 마음에 성큼 다가가 길을 물었어요

... (중략) .

바리공주는 온몸이 흠뻑 젖도록 열심히 발을 갈았어요 하지만 한나절이 지나도록 간 것은 겨우 한 고랑뿐이었어요. 하지만 한나절이 지나도록 간 것은 겨우 한 고랑뿐이었어요

“휴우, 이 넓은 발을 언제 다 가나?”

바리공주가 한숨을 내쉬며 땀을 닦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돌돌돌 땅이 움직이더니, 발 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 바라보니, 난데없이 두더지 떼가 까맣게 물려온 거예요 두더지들은 이리저러 땅 밑을 헤집고 다녔지요 그리고는 눈 깜짝할 새에 발을 다 갈고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90)

(ㄴ) 빨래하기

할머니는 산더미처럼 빨래를 쌓아 놓고 쓱쓱쓱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세계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할머니는 들은 척도 않고 빨래만 했어요.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공주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빨래를 시작했어요 쓱쓱 문지르고, 쓱쓱 비벼빨고, 툭툭

90) 허은미, 『한겨레 옛이야기2: 바리공주』, 한겨레신문사, pp 35-36.

두드려 빨래를 했습니다 그 동안 할머니는 햇볕 바른 곳에 누워서 낮잠을 잤어요
(중략)

할머니는 무지갯빛 꽃 두 송이와 반짝반짝 빛나는 금방울 두 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금방울을 던지거라”⁹¹⁾

(ㄷ)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과 강 건너기

바리공주는 이상한 물도 다 있구나 생각하며 살짝 손을 담가보았습니다

“앗, 뜨거워!”

불에라도 덴 듯 너무나 뜨겁고 쓰라렸어요 당장에라도 손이 녹을 것만 같았어요 그 때였어요. 어디선가 무시무시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옥으로 쫓겨가는 영혼들이 강물을 건너면서 내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어쩌나 슬프고 고통스럽게 들리던지, 바리공주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고통을 덜어 주세요”

공주는 문득 할머니에게서 받은 금방울이 생각나서 강물에 던져 보았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짝 갈라졌요 그리곤 길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리공주는 영혼들과 함께 무사히 강을 건넌답니다⁹²⁾

위의 동화로 재창조된 바리공주에는 일반노동화소와 여성노동화소 그리고 오구신으로 좌정이 되기 위한 화소가 각각 전개되고 있었다 바리공주가 과업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단순히 역경을 극복하는 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부모에게서 버려진 삶을 스스로가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되고 사회권 밖으로 밀려나갔던 삶을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과정이 된다.

그러나 <바리공주>를 망자천도를 위한 무속신화로서 문학적인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고통받는 영혼들을 도와주는 바리공주의 역할은 어떤 과업들보다도 의미가 있는 화소가 된다. 즉 영혼들과 함께 강을 건너는 화소는 앞의 두 화소에 비하여 간략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오구신으로 좌정이 되는 바리공주를 위해서는 부족한 전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울본에는 바리공주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제하는 화소가 풍부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앞의 일반노동화소와 여성노동화소보다도 오구신의 이야

91) 허은미, 앞의 책, pp 40-41

92) 허은미, 앞의 책, pp 42-43

기인 <바리공주>에서는 서울본의 아래와 같은 화소를 더욱 풍부하게 살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ㄱ) 도중에 만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죄상을 알아달라고 부탁을 받는다 <홍원 지금철본>, <함흥 이고분본>

(ㄴ) 지옥을 지나가다가 죄인들을 구제한다 <서울 문덕순본>, <서울 김종덕본>, <서울 배경재본>, <서울 최명덕본>, <서울 새우젓집본>, <서울 김대길본>, <인천 도정희본>, <성남 장성만본>, <김동욱 소장본>

또 지옥에 있는 죄인들을 자세하게 묘사하며 구경하는 화소가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보시오 저기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큰 말을 쓰고 작은 말을 깔고앉아 방성통곡으로 울음 우나요 저기 저기 저 사람은 생전에 살 적에 욕심많은 부자 장자로 살았는데 봄에 장례 쌀을 내줄 적에 쪼그만 말로 패어주고 가을에 받아 들일 적에는 큰 말로 받아들였으니 그것이 죄가 아닌가 얼마나 만치 가다가 가다가 보니 어떤 사람 혀는 개가 물고 개 혀는 사람이 물고 방성통곡으로 울음을 운다 저기 저기 저 사람은 생전에 살 적에 부모님 상을 입고 개고길 먹었으니 그것이 죄가 아닌가 얼마나 만침 가다가 보니 위는 사람이고 밑에는 독시되어 우네 아이구 여보시오 몰랐네 저기 저기 저 사람은 생전에 살 적에 음식을 남을 줘도 못먹는 음식만 남을 주고 먹는 음식을 줄 적에는 일을 실컷 부려 먹고 남을 주고 오뉴월에도 구랭이가 간장단지에 빠진 거를 자기는 먹자니 무서워서 못먹고 내버릴라니 아깝고 모도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모도 퍼줬으니 그것이 죄가 아닌가⁹³⁾

구체적으로 어떤 죄상으로 지옥에 오게 되었는지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바리공주가 지옥에 갇혀 있는 죄인들을 구제해 주는 서사는 죽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오구신이 된 <바리공주> 신화에 반드시 필요한 서사이다 바리공주가 버려진 영혼들을 구제해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버려진 삶을 구약여행을 통해 다시 되찾게 되는 의미이고 사회적으로는 오구신으로 좌정되기 위한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즉 바리공주가 지옥에 영혼들을 구제하는 화소는 저승으로 가는

93) 김진영·홍태한, 앞의 책, <속초 탁순동본>, p 206

영혼들을 안내하고 남겨진 사람들의 위안이 되는 오구신을 형상화한 신화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계승되어야 하는 서사이다.

또 문학적으로 아직은 이승에서 남겨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권계가 되기도 한다 이승에서의 삶에 따라 죽어서의 삶이 결정되는 것은 우리의 내세관과도 관련이 있는 모습으로 <창세신화>에서 미륵 또는 대별왕이 다스리는 저승의 삶과도 연관성이 있다 저승에서의 지옥은 부정적인 세계라기 보다는 이승에서 구현되지 못했던 정의 실현을 위한 세계인 것이다 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형상화된다는 것은 그녀가 평범한 인간이 사는 이승계의 공간을 넘어서 저승계로 공간이 이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바리공주는 신화로서의 신비함과 신성성을 획득하게 된다

반면에, 현대의 가치관에 위배가 되고 보편적인 윤리관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화소에 대해서는 변형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 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화의 경우가 더욱 그렇다

그래서 동화 <바리공주>에서도 약수를 지키는 동수자와의 만남을 변형시켰다 대부분의 무속신화에는 이본의 차이가 없이 동수자와의 만남에 다른 과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의 화소 또는 약수를 지키는 존재와의 결혼이 있다 그런데 동수자와 혼인을 하여 아들들을 낳아줘야 약수를 얻어갈 수 있다는 과업은 현대에 문학적으로 재창조하기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가치관이다 즉 두 존재의 결연이 순수한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목적을 두고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리공주의 입장에서는 약수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상황이고 동수자의 입장에서는 아들들을 얻기 위하여 또는 천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결연을 맺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문제 때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화 <바리공주>에서는 서울 또는 동해안본의 무속신화의 서사 구조를 그대로 따를 수가 없었다. 동화에서는 두 사람의 결연에서 각각의 목적성을 제외시켰다. 바리공주는 부모를 위해서 결연을 한 것보다는 고민은 잠시 했으나 동수자가 배필로 마음에 있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동수자도 아들들을 낳아달라는 조건을 제외시킨 채 바리공주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듯이 형상화했다. 즉 두 존재의 결연을 낭만적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그 서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원래 하늘나라에서 옥황상제를 모시던 사람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이 곳으로 귀양온 지 삼 년이라오 나와 결혼해 주면 약숫물을 얻어주겠오”

바리공주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주가 보기에 동수자는 늙름하고 씩씩한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믿음직스럽고 성격도 시원시원한 것 같았어요 마침내 바리공주가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동수자님을 저의 배필로 삼겠습니다.”

그 날 저녁 두 사람은 간단하게 상을 차리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첫날밤을 보내고 바리공주와 동수자는 서둘러 약수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94)

남녀 주인공의 아름다운 결연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동화 <바리공주>는 이와 같은 변형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무속신화의 독자를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확대하여 문학적으로 재창조하게 된다면 이러한 윤리적인 내용으로의 변형은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오히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윤리적·도덕적인 내용으로의 변형이 신화로서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리스신화의 경우에도 신들의 모습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보다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윤리적인 가치관을 전달하고 있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형상화 한 서사구조는 인간의 삶과 거리가 있게 되며 문학적인 가치도 기대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조리한 모습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갈 때 신화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문학적인 효용성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속신화의 서사구조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학적 창조물인 경우에는 부조리한 신들의 모습에서 질서가 잡혀지는 모습으로의 발전이 흥미와 감동이라는 문학적인 가치에 부흥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낭만적으로 포장된 바리공주와 동수자의 사랑보다는 천상에서 쫓겨난 동수자와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바리공주가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 결연을 하지만, 아이를 낳고 살아가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사랑이란 감정으로 발전되가는 모습이 무속신화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보여진다

3) 세 번째 오구신으로 좌정

94) 허은미, 앞의 책, p 49

- 되살아난 오구대왕
- 오구신이 된 바리공주

바리공주는 구약여행을 통해 버려진 존재에서 구원하는 존재로 발전하게 된다. 그녀가 구원한 존재에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자아, 저승에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천상에서 버려진 동수자 그리고 자신을 버렸던 부모이다. 결국 바리공주는 저승으로 가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버려진 존재들을 인도하면서 오구신으로 좌정하게 되었다. 즉 그녀는 지옥으로 가는 이들을 구원하고 이승에서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인 것이다.

이러한 서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저승으로 보내는 이승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위안이 된다. 바리공주와 같이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따뜻이 감싸안을 수 있는 신이 영혼들의 길 안내를 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서울본과 동해안 본 모두에서 볼 수 있는 서사이며 문학적 재창조물에서도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다.

다. 새로 쓴 바리공주의 서사적 구성안

- 서울본과 동해안본을 중심으로-

<바리공주>는 전국에 분포되어 많은 이본을 가진 무속신화이다. 그만큼 다양한 화소들로 변형되어 서사가 풍부하다. 따라서 가장 많은 문학적 재창조가 이루어진 무속신화이며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재창도 된 신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사의 대부분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바리공주의 모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오구신이 된 바리공주의 형상화는 그 의미를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새로 쓴 바리공주의 서사적 구성안은 '우리의 신화 만들기'라는 가치관 아래 오구신이 된 바리공주의 화소에 중심을 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바리공주가 어려운 과업을 극복해 나가는 화소를 통해 그녀의 비범성을 형상화한다. 그리고 9)번과 13)번과 같은 지옥과 저승의 묘사는 오구신이 된 바리공주를 위하여 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지옥과 저승의 공간은 평범한 인간이 쉽게 갈 수 없는 금기의 공간이므로 무속신화의 신성성을 형상화시키는 배경이 된다. 그리고 지나치지 않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바리공주의 모습을 통해 그녀가 오구신으로 좌정된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

즉 오구신이 된 바리공주에 초점을 둔 서사적 방안으로 많은 방안 중에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오구왕과 길대부인이 혼인을 하기 위해 점을 치나, 그 결과를 무시하고 혼인한다. <서울본>
- 2) 부부 사이에 일곱번째 공주로 태어난 바리공주는 버려진다 <공통>
- 3) 석가여래가 함 속에 바리공주를 발견하고, 마침 자식이 없는 비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어 그들에게 바리공주를 키우게 한다 <서울본 변형·바리공주가 여자애기여서 제자로 삼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4) 오구왕과 길대부인은 중병에 걸린다. <공통>
- 5) 스님 한 분이 찾아와 부부에게 저승세계의 약수만이 약이라고 알려준다 <동해안본>
- 6) 신하들과 여섯 딸들은 핑계를 대고 약수를 구하러 가지 않고 대신 바리공주를 찾는다 <공통>
- 7) 부모와 만난 바리공주는 낳아준 부모님의 은혜를 위하여 남장을 하고 구약여행을 떠난다. <공통>
- 8) 바리공주는 도중에 빨래를 씻어주고 밭을 갈아주는 등의 과업을 해결한다 <동해안본>
- 9) 바리공주는 지옥에 갇혀 있는 죄인을 구제하고 지옥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서울본+속초 탁순동본>
- 10) 동대산에서 약수를 지키는 동수자를 만나게 되어 여자인 것이 들통난다. <동해안본>
- 11) 바리공주는 약수를 얻기 위해 동수자와 혼인하여 아들들을 낳고 살게 된다 <동해안본>
- 12) 바리공주는 약수와 꽃을 구해 가족과 함께 부모에게 찾아간다. <변형>
- 13) 바리공주는 돌아오는 도중에 저승 가는 배들의 행렬을 구경한다. <서울본>
- 14) 바리공주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어서 상여가 나오고 있다 <공통>
- 15) 바리공주의 언니들이 방해를 한다 <동해안본>
- 16) 바리공주는 물리치고 가지고 간 꽃과 약수로 부모를 살려 낸다 <공통>
(동수자는 하늘에서 죄를 지어 약수터 지킴이로 내려온 사람으로 아들 삼 형

제를 낳아야 다시 하늘로 올라 갈 수 있다)

위의 정리는 문학적 재창조를 위하여 새롭게 <바리공주>의 서사구조를 정리해 본 것으로 이것은 하나의 예로서 다른 무속신화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서사구조이다 즉 무속신화가 대중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은 이본들을 채록하고 그 안에서 신화의 본질을 살려주는 화소를 선택하고 또 새로운 변형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은 무속신화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화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서사의 재구성은 <바리공주>가 옛 이야기 수준에 머물지 않고 무속신화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함인 것이다

4.2.3 세경본풀이: 캐릭터의 형상화 방향

외국의 신화들이 일반인들에게 문학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된 역할 중의 하나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생동감이 살아있는 신들의 모습 때문이었다 특히, 신화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모습은 신이라는 초월적인 존재의 모습이기 전에 인간적인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인간적인 모습들은 대중들이 신화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 따라서 무속 신화를 대중들에게 삶과 함께 하는 편안한 신화로 수용시키는 데는 신화 속 인물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인물의 캐릭터 형상화 방향이다

그 한 예로 그리스·로마신화는 세계인들에게 이미 모든 신들의 모습을 하나의 캐릭터로 각인 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예를 들어 사랑의 구현에 있어서 이성간의 본능적인 애욕의 원리는 아프로디테에게서 구현되고 있고, 이성간의 정신적인 사랑은 프시케에게서 구현되고 있고, 독신녀들 사이의 순결한 사랑은 아르테미스에게서 구현되고 있다. 물론 그리스 신화의 사랑 모티프는 성적인 의미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어서, 자식에 대한 모성애의 원리는 데메테르에게서 나타나며, 죽음과 부활의 순환에 작용하는 사랑의 원리는 페르세포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⁹⁵⁾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을 캐릭터화한 힘은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계 전반에 두루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의 무속 신들의 경우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라는 특수한 특

95) 양영수, 「제주 신화에 나타난 공존과 사랑의 원리」, 『제주도 연구』 제 14집, 1997.

정을 가지고 있다 이 특징은 신에게서 절대적이고 엄격한 모습 대신에 인간다운 모습을 지닌 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신화의 중심에서는 본풀이는 신의 성격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서 무속 신화의 신들은 그 어느 신화의 신들보다도 살아있는 성격이 더욱 부각된다

그래서 많은 무속 신들 중에 사회에서 규정한 정형화된 성격을 극복하고 사랑의 힘을 발현시켜 더 큰 사랑의 힘을 얻게 된 <세경본풀이>⁹⁶⁾ 속 자청비를 중심으로 인물들의 성격을 규명해보겠다 다만, <세경본풀이>에는 많은 인물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나, 주변인물들은 서사구조에서 중심 인물의 관계 속에 일부로 보고 중심인물인 ‘자청비’와 ‘문도령’, 그리고 ‘정수남’이의 성격만을 캐릭터화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작품의 연구와 같이 기존의 문학적 재창조물의 위치를 통해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 방안으로서의 문학적 재창조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가. <세경본풀이> 인물들의 성격

1) 사랑의 여신. 자청비

자청비는 다른 무속 신들이 현실을 극복하고 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고난 극복의 전형적인 인물인 것처럼 여러 제약을 가하는 사회를 극복하고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좌정하는 신의 역할에 따라 대부분의 논의⁹⁷⁾에서는 자청비를 오곡의 신으로 보았다. 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사회적인 성의 구별을 전제로 여성 영웅적인 인물로 평가하였다.⁹⁸⁾ 그러나 자청비가 오곡의 신이 되기까지와 여성

96)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 11집, 1990

———, 「백중의 기원과 성격」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 민속학』 25집, 1993.

97) 이수자,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논집』 11집, 1990.

———, 「백중의 기원과 성격」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 민속학』 25집, 1993.

98)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 구성의 특질」, 『한국민속학』 31집, 1999.

강진옥, 「한국 민속에 나타난 여성상의 변모양상」, 『한국민속학』 27집, 1995

영웅적인 인물로 된 것은 문도령에 대한 사랑의 힘을 바탕으로 자청비의 적극적인 성격 때문이다 즉 자청비는 무속 신화 속의 어떤 신들의 모습보다도 정신적·육체적 사랑에 용기있는 모습으로 솔직하고 대범하게 자신을 내던지고 있다

우선, 자청비의 사랑에는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 남성보다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여성이라는 한계와 천신의 존재와 인간의 사랑이라는 한계로 시작이 된다

대스중이 말을 하네,

“대감님아, 대감님아, 백근이 차아시민 남즈생불이 탄생홀 듯한 디 백근이 못내 차난 예즈식 탄생시검시매 어서 짐진국땅 들어강 하공일을 받아 그네 쿠베간이 천상 배필 무읍소서”

- 안사인 구송-99)

백 근 중에 한 근이 모자라 남자아기가 아닌 여자아기가 태어난다는 이야기는 당시의 사회구조가 여성을 남성보다는 모자라는 존재로 본 것으로 자청비 역시도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음을 표출한 것이다 그리고 문도령을 만나서 함께 수학하기 위하여 떠날 때에도 자청비가 부모를 설득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녀가 남성중심적인 문화권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님아, 아버님아, 저도 삼천선비영 글공부 가기 어쩍네까?”

아버님이 말을 하네,

“지집년이라 혼 게 글공뷔라 혼 게 뵈일러나?”

즈청비가 말을 하네,

“아버님아,망년가사 여즈식 하나 솟아나 널만이라도 아바님이 이 시상을 떠난댕 혼민 기일제스 때 축지방이라도 절로 써 올릴거 아님네까?”

“그것도 그럴듯한 말이여, 어서 계건 글공뷔하라.”100)

윤교임, 「여성 영웅 신화 연구 초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해석」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임명숙, 「페미니즘 시각으로 본 세경본풀이 연구」, 『문학과 환경생명』 13집, 2000
좌혜경, 「자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한국민속학』 30집, 1998.

99)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 한국고전문학전집 29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p 200.

100) 현용준·현승환, 앞의 책, p.204.

부모가 딸에게는 글공부가 필요 없다는 사회적 금기를 이야기한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을 분리시키고, 나아가 남성성은 긍정적인 것, 여성성은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자청비는 오히려 여성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금기인 제사지내는 문화를 들어 허락을 받아낸다. 주어지는 부조리한 환경에 저항하거나 순응하는 모습이 아니고 또다시 그 딜레마를 이용하여 성취해 나가고 있는 여신다운 모습을 발휘하고 있다. 그 모습은 자청비가 영웅이라는 엄격한 존재의 표상으로 보이게 하기보다는 삶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재기발랄한 소녀로 보이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으로서의 한계는 가정을 벗어나 사회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다시 한번 보여 주고 있다.

“글 제주는 느가 좋돼 뜬 제주는 나아피 지리라”
 자청비가 그 말 뜻엔,
 “뭘 제주 건디 느아피 떨어질 필요가 있겠느냐?”
 “어서 걸랑 그리호자.”

문도령이 찻짜이 곶기는 게 오섯 축 반을 곶기난, 자청도례는 예즈죽심 졸라단 바짓굴에 담아 네 혼 맥을 썬 오좁을 내곶기난 열두축 반을 나아간다. 문도령은 그 제주아울라 지고 보니 무엇이 엔 홀 수 웃고 황복을 허여가는구나 101)

문도령이 자청비가 여성임을 눈치 챈 후, 자청비가 지혜로 그것을 모면하자 문도령은 오좁누기 내기를 하자고 한다. 오좁 멀리 내갈기기 내기는 남녀의 생물학적인 거리로 사회적인 거리까지를 보여 줄 수 있는 화소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자청비는 왕대죽순을 찢아서 문도령을 이기게 된다. 이는 생물학적인 거리가 사회적인 거리를 나타낼 수는 없음을 경계시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자청비가 인간으로서 천신의 존재인 문도령을 사랑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난 역시도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절대적인 힘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양의 신들이 인간과의 관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가치관에 반해서 우리의 신들은 인간과의 거리가 가까우며 같은 공동체적인 존재로 그려져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101) 현용준 · 현승환, 앞의 책, p 208

경호민 부모님아, 서수왕에 장계 아니 가오리다

“이놈 저놈 죽일놈아, 이게 무슨 말이냐? 나 메뉴리 댈 ㄱ심은 쉬은자 구덩이 파 놓고 솥 선심을 문영 불을 살라놓고 불 우회 칼싼드리 노아그네 발아나고 발아들 어사 나 메뉴리 ㄱ심이 댄다”

수벨캄 수장남을 불러놓고 쉬은자 구덩이 파놓고 솥 선심 불을 질러 칼싼드릴 노아 노난, 자청비가 올라사쟁 호민 문도령이 잡아둥기곡 문도령이 올라사쟁 호민 자청비가 잡아둥기곡 둘이 앓아 대상통곡 비새ㄱ찌 올 때예, 문도령이 호는 말이, “자청비야, 오늘날 죽더라도 이 문칫 구신이 댈 것이니 호다 섭섭이 생각말라”

자청빈 비육ㄱ뜬 얼굴에 주춤ㄱ뜬 눈물을 연새지듯 허여 가명 발에 신었던 백 녹보선 벗어두고 족새ㄱ뜬 발로 칼싼드리 우의 올라산다 102)

자청비가 문도령의 부모가 내린 칼선다리를 건너는 시험에 성공하자 부모는 머느리로 인정을 하게 된다 자청비가 시험에 성공하는 것은 사랑의 힘으로 문도령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의미 외에 여성으로서의 존재성을 승화시킨 결과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그녀는 칼선다리를 건너며 발뒤꿈치를 베어 속치맛자락에 묻히어 여자들에게 한달 마다 오는 월경의 법도를 마련해 준다 뿐만 아니라 월경은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1차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나 다시 2차적으로 성숙한 여성이 됨을 의미한다. 한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아내가 될 수 있는 능력과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능력이다 여성에게 생산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여성들의 고유한 영역이 된다 인간 세상에 법도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그녀가 더 이상 지상의 존재가 아닌 천상의 존재가 되었음을 말해준다 즉 여성으로서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농경의 신이 된 자청비와도 의미가 같다. 다산은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여성이라는 점과 지상의 존재라는 한계는 자청비로 하여금 처한 현실에 따라가는 피동적 존재로서가 아닌 사랑을 가꾸고 이루어가고 있는 여신으로서의 모습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다른 무속 신화 속의 여신들이 주어지는 운명에 의하여 고통을 받고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역할이었다면 자청비는 환경을 극복하는 여성상인 것이다. 특히, 그녀의 금기를 뛰어넘는 재치발랄하고 명량한 모습은 사랑을 생취해 나가는 모습으로 당시 사회가 요구했던 순응적이고 의존적인 여성상과는

102) 현용준·현승환, 앞의 책, p 248

대조되는 모습으로 그만큼 사랑의 힘이 강조된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힘은 그리스·로마 신화의 여신들처럼 분화된 사랑의 힘이 아니다 앞서 말한 아프로디테나 프쉬케처럼 사랑의 형태가 육체적 또는 정신적 사랑이 이분화되지 않았다 자청비는 사랑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으로 육체와 정신의 사랑을 합일시키고 있다 완성되고 성숙된 사랑의 힘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자청비는 문도령을 보고 한눈에 반하지만, 남성이 먼저 손을 뻗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반대로 쉽게 불장난과 같은 사랑을 시작하지고 않는다 그녀는 남장을 하고 문도령을 따라 나서서 문도령이 어떤 존재인가를 탐색하고 자신의 감정을 확인해 본다 자신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쌓인 후 주저없이 육체적인 관계를 나누고자 한다 바리공주가 부모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 동수자에게 시집을 가는 모습과 당금애기가 시주 온 스님과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육체적 관계를 갖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청비가 문도령과의 사랑을 성사시키는 장면은 현대적인 자유연애주의 수준에 가까울 정도이다 103)

 자청비가 말을 하네,
 “문도령아, 오라 우리 연삼년 글공뵈 혼디 몸에 글텐덜싸 아니 오르리야 몸목욕
 이나 허영가게”
 “어서 걸랑 그리호자”
 자청비는 옷통으로 들어가고 문도령은 알통으로 들어가, 자청비가 그만서 문도령
 거동을 보니, 문도령이 우알로 활짝 벗어진 물레레 튀어들언 동으로 나민 서으
 로 들고 서으로 나민 동으로 들어 완방참방 몸목욕을 허염시난 자청비는 옷통만
 벗어 아전 씻이는 책 마는 책 물소리만 내단 버드낭 습 끈어내여 글을 쓰웨,
 “눈치 모른 문도령아, 명창혼 문도령아, 연삼년 혼 이불 속을 줌을 자도 눈치 모
 른 문도령아”104)

당돌한 편지글을 받은 문도령은 그제서야 사실을 알고, 먼저 뛰어가는 자청비를 따라가 그녀의 집에서 함께 정을 나누게 된다 여기까지 문도령과 자청비의 모든 관계는 자청비의 적극적인 성격이 주도하고 있고 그녀가 사랑에 망설임없이 뛰어

103) 양영수, 앞의 글, p 181

104) 현용준·현승환, 앞의 책, p.210.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인 자청비가 혼인 전에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성이 적극적인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성은 숨기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아프로디테가 아름다운 미모로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청비는 육체적인 관계가 정신적인 사랑을 전제로 하고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의 합일을 이루고 있다 즉 그녀는 도덕적인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탈적인 인물이 아니다 스스로 문도령이라는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고 사랑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사랑 자체를 즐긴 후 책임을 지기 위하여 다시 여행을 하게 된다.

자청비와 표면 화문을 수행 자청비와 표면 부모에게 쫓겨남
문도령의 만남 -----> 자청비의 여행 1----->문도령의 이별 -----> 자청비의 여행2
이면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여행 이면 사랑을 찾기 위한 여행

모든 여행의 목적이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자청비는 매번 겪게 되는 위기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게 된다 자청비는 천상의 부름을 받은 문도령과 잠시 이별을 하게 되고 위기를 겪게 된다 첫 번째로 겪게 되는 위기의 대상은 집에서 부리는 종인 정수남이다 처음으로 자청비에게 가해지는 사랑에 대한 시험으로 그 내용도 애욕을 바탕으로 한다 사랑을 시험하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랑이 갈등의 요소가 된다. 정수남이는 종이라는 천민의 신분이기 는 하나 자청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남과 여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자청비가 발딱 일어사명,
“아이고, 나 일이며, 저 놈아피 속았구나. 잘못헌당 저놈 손등에 죽어점직하다 아명허여도 께로나 달레여살로고나” “정수남아, 어떤 일로 영 흥느냐? 너의 소원 말을 일르라”
“상전남아, 상전남아, 영흥서 은쥬 7튼 손이나 문직아 보게.”
“정수남아, 나 손 문지는 것보단 집의 강 토시 혼 착을 찌보라 더군 좋아진다.”
“영흥서. 입이나 맞추와 보게.”
“나 입 맞추는 것보단 나 눕는 방안의 꿀단지 세로 할타보라 더군 돌아진다”¹⁰⁵⁾

문도령을 만나도록 해주겠다는 정수남이의 속임수에 넘어간 자청비는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받게 된다 이 육체적 관계는 강요받는 관계로 자청비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관계이다

자청비가 문도령과의 사랑을 완성하면서 적극적이고 명량한 성격을 보여 준 것처럼 정수남이와의 관계에서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명량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즉 이 위기에서도 금기를 또 다른 금기로 해결한 것처럼 정수남이의 애욕의 욕망을 더 큰 욕망을 이용하여 사랑을 지켜나간다

“정수남아, 기영 용심만 내지 말꼭, 서산에 해 점시메 오늘 처낙 밤유이호게 도롱담이나 다왕 움막이나 짓게 ”

걸흔 정수남이 벌떼ㄴ찌 돌려들어 동데레 번은 낭가제이 서레레 자쳐놓고 서레레 번은 가쟁이 동데레 자천 막을 호나 지어노난, 담고망이 베롱베롱혼다

“정수남아, 저 고망으로 촌 느룻이 들어오랑 밤자리를 못내 잘 듯호메 안으로 내 불을 살르건 늘랑 밧격들로 불비추는 고망이랑 소왕소새 비여당 막으라 ”

“어서 기영흡서.”

안으로 불 비치는 고망마다 정수남이 소왕소새 비여당 열고망 막으면 즈청빈 안에서 다섯고망 빵 조롭데레 꼬아앗꼭, 다섯고망 막으민 두고망 빠꼭, 기영저역 호는게 먼둥인둥 게면천지 붉아간다 106)

손잡고 싶다, 입맞추고 싶다, 허리 안고 싶다는 정수남이의 욕망을 자청비는 오히려 함께 잠을 자자며 돌담집을 짓게 하여 잠재운다. 자청비의 대담한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화소로 정수남이에게 돌담의 구멍에 풀을 베어다 막게 하고 자신은 다시 풀을 빼내어 구멍을 만들어 밤을 다 지새운다. 지혜로운 자청비의 모습은 두 남녀가 움막짓는 장면의 묘사로 본능적인 애욕행위가 집을 짓는다는 생산행위와 결합됨을 보여줌으로써 애욕의 여신과 생산력의 여신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자청비의 이중적인 성격을 암시하기도 한다 107)

그리고 정신적인 교류가 부재된 사랑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청비의 모습이

105) 현용준 · 현승환, 앞의 책, pp.228-230.

106) 현용준 · 현승환, 앞의 책, p 230

107) 고대경, 『신들의 고향』, 증명, 1977, pp 138-139

우리의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가치관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여성도 사랑에 대한 욕망이 있으며 이것을 행동으로 표현 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활달하고 대범한 자청비의 면모에서 말하고 있다 나아가 사랑이란 감정의 완성을 위한 성 관계를 그들 속에 숨기려고 하지 않고 솔직하게 밖으로 꺼내들어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자청비의 캐릭터가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자청비가 사랑을 상징하는 여신이기에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으로 확장이 된다 결국, 그녀는 곡식을 관장하는 신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사랑이란 단어와 연결되는 신이 존재하지 않았다 아프로디테나 큐피트와 같은 서구의 신들이 떠올려질 뿐이었다 그러나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중세경이란 곡식을 관장하는 신이기는 하나, 그것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고 발현시키는 신이 된다

자청비가 보여주는 좌충우돌의 솔직하고 대범한 모습은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밝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즐거움과 함께 책임이 뒤따르는 희생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자청비의 성격을 살려낸 문학 또는 다른 예술물을 창조한다면,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그려주는 신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신·문도령

주인공 자청비의 상대자인 문도령은 인간이 아닌 천상의 신이다. 그럼에도 신다운 위엄과 권위가 있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문도령’이란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아직은 부족함이 엿보이는 미성숙의 상태에 있다. 대별왕과 소별왕처럼 천상적인 존재의 아들은 천신의 존재만큼이나 신성한 능력이 있고 그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도 위엄을 형상화한다 그러나 문도령은 ‘도령’이란 인세에서의 호칭을 사용한다.

문도령이 천상의 존재임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자청비아가씨 서대구덕 웨읍쌍지 혼두 설 입단 옷 열다섯 십오세끼기 입단 옷 둘러 담아 꼭써ㄴ똥 발자국에 주천강 연못디 연서답을 가설란은 연방축에 연서잡을

호단보난 하늘옥황 문국성 아들 문왕상 문도령 종이 ㄱ든 붓에 일반장의 배릿들에 산천장의 먹을 ㄱ져 알엿 녀 거어무선성 아피 글공부 느려온다 108)

하늘옥황 문국성의 아들로 소개되어지는 문도령이다. 문도령이란 호칭에 걸맞게 그는 <세경본풀이>의 전체 서사에서 어디에도 신성한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 신성한 힘을 발휘하기 보다는 시종일관 자청비에게 당하는 모습이다. 문도령이 당한다는 것은 언제나 자청비와의 관계에 있어서 피동적인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한다.

자청비와 문도령의 관계를 형상화한 표는 다음과 같다

	사건	주체자	피동자	해설
1	만남	자청비	문도령	자청비는 문도령과 주천강 연못에서 처음 만나 마음에 두고 따라나서길 결심한다. 예) "도련님아, 어딜 가시는 행차입니까?" "나는 아래 쪽의 거무서생에게 글공부 가는 길입니다." "도련님아, 우리 집에도 꼭 나 같은 남동생이 있는데, 우리 동생도 거무선생에게 글공부 가려 하지만 같이 갈 선비가 없어 오늘까지 있으니 함께 가는 것이 어떨까요?" (출처: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 한국고전문학전집29집,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66, p. 205)
2	수학 (修學)	자청비	문도령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모든 대결구조에서 이기게 된다 (글공부, 오줌 내갈기기). 예) 문도령이 첫 번째 내갈기는 것이 여섯 자 반을 내갈기니, 자청도령은 여자의 몸이라 어찌할 수 없으니, 미리 왕대밭에 들어가서 왕대죽순을 찢라다가 바짓굴에 담아 한번 힘을 써 오줌을 내갈기니 열두 자 반이 나간다. (앞의 책, p. 209)

108) 현용준·현승환, 앞의 책, p.202

3	결연	자청비	문도령	자청비가 문도령에게 스스로가 여자임을 밝힌다 그 말은 들은 문도령은 그제서야 자청비를 찾아가고 두 사람은 사랑을 쏜다 예) "눈치 모른 문도령아, 멍청한 문도령아, 3년 동안 한 이불 속 잠을 자도 눈치 모른 문도령아." 글 석자 써서 아래 물통으로 띄워 두고, (중략) 그 말 들은 문도령은 개도 쥐도 모르게 누웠던 방안에 들어가 긴 한숨을 쉬어가며 누웠더니, 자청비가 들어오면서 말을 하되, "도련님아, 어찌 긴 한숨입니까?" 3년 동안 눈 속이던 사랑을 풀어 누웠더니, 천황담이 목을 들어 날이 새게 되어간다. (앞의 책, p211)
4	이별	옥황 문왕성	문도령	수학하는 문도령에게 옥황 문왕성이 돌아오라는 편지를 보낸다 예) 문도령이 주워 보니, 하늘옥황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로구나 "문도령아, 3년 글공부 하였으니 그만 해서 어서 돌아와 서수왕아기에게 장가가라." 하였으니, 문도령이 편지를 갖고 들어가, "자청도령아, 난 글공부 그만 하고 집에 가야 하겠다. (앞의 책, p 209)
5	재결합	자청비	문도령	부모에게서 쫓겨난 자청비가 문도령을 찾아 나서고 결연하기 위하여 시험에 통과하기도 한다. 예) 자청비는 비옥 같은 얼굴에 염주 같은 눈물을 한없이 흘려가면서 발에 신었던 백능버선을 벗어두고 박씨 같은 발로 칼날이 선 다리 위에 올라선다 (중략) 문도령 부모가 달려들어, "이러한 아가씨가 어디 있을까. 내 떠느리 자격이 넉넉하다. 어떤 일로 치맛자락 뒤편 더러워졌느냐?" (앞의 책, p 249)
6	신좌정	자청비	문도령	자청비가 세변란을 막아 천자왕에게서 오곡 열두시만곡을 받고 중세경이 된다. 그리고 문도령은 상세경, 정수남이는 하세경이 된다. 예)세변란을 막으니 천자왕이 땅한 조각 물 한조각 내 준다. 자청비가 천자왕에게 등장들 때, "오곡 열두시만곡이나 내 주십시오." 시만곡을 내 주니 문도령을 거느리고 칠월 열 나흘날 인간에 내려쳤는데, 그때 내 법으로 7월 열 나흘날은 백중이 됩니다. (앞의 책, p.256-257)

첫 만남에서부터 문도령은 자청비보다는 어리숙한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고 그 모습은 계속 유지된다

태주박에 물을 흔 박 떠아전 수양버들 싹을 삼식번 훑어놓고 문도령안티 들고 가니 문도령이 말하네, “어찌흔 일로 아기씨상전님아, 얼굴과 속이 ㄴ뜨질 못허연 고은 물에 꺾인 티를 노아줍네까?”

“도련님아, 흔 일은 알곡 두 일은 모른 도련이로고나 급흔 질을 행흔는 것 ㄴ타 목이 ㄴ르고 애가 쓴 듯 흐곤테, 물이라 흔 건 목을 노아 먹다는 물어 체흐민 약도 엇는 법입네다 물에 티를 노앙 드리민 텃궁기로 물을 빨아먹을 거난 물에 티를 노아 드렸수다.” “그 말씀 그럴듯흐우다.”¹⁰⁹⁾

문도령은 자청비가 생각한 지혜에 대하여 미처 생각하지 못함에 민망함을 당하고 있다 신이 인간에게 부족한 생각에 대하여 꾸지람을 듣는 상황은 앞으로 전개될 자청비와 문도령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곧이어 문도령을 마음에 둔 자청비는 남장을 하여 문도령을 속이게 된다

아눔 ㄴ득 책을 안고 쯤이 ㄴ득 붓을 들고 부모님에 이별허여 먼문 뱃기 나간보난 문도령이 사시나에 ㄴ청비가 ㄴ꺾디 간 문도령아피, “성통명 아웁니다.”

문도령이 말을 하네, “ 나는 하늘옥항 문왕상 문도령이 웁네다.”

“나는 주년국땅 ㄴ청도례가 웁네다. 알엿넹 거무선성아피 글공부 간다니 저도 흔 어께로 가기 어쩍네까?”

“어서 걸랑 그럽소서.” 성제 삼안 가는구나.¹¹⁰⁾

자청비와 함께 수학울 하게 되는 문도령은 모든 부분이 지혜로운 자청비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일방적으로 문도령은 자청비에게 지게 된다. 그것은 기존의 사회적인 가치관을 역행하는 모습이다. 천신이 인간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남성이 여성에게 선택받게 되는 모습이다. 즉 문도령은 사회적이고 생물학적인 특성보다는 개인적인 성격이 문도령을 형상화하고 있다. 성격적으로 문도령은 자청비의 거침없는 모습에 비하여 소심한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문도령이 자청

109) 현용준·현승환, 앞의 책, pp.202-204.

110) 현용준·현승환, 앞의 책, p.206

비에게 계속 질 수 밖에 없는 모습은 그의 성격에서 연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신의 존재가 완벽하고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형상화된 것이 일반인들의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행하고 있는 신이 문도령이다. 문도령은 천상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보다 더욱 인간다운 신이다. 이러한 문도령의 성격은 사람들에게 독특함 또는 상식에 대한 반전으로 생기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온 신의 이미지는 엄격하고 완벽하고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도령의 모자람이 많아 보이는 성격도 무속신화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신과 인간의 거리를 좁히는 장점을 주게 된다

그리고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의 발랄하고 활동적이며 능동적인 인물의 성격은 반대로 어수룩하고 모자람이 많은 신, 즉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신 문도령이 존재하기에 가능했다

3) 원초적 욕망의 신. 정수남

사회적인 관계로 보면 정수남은 자청비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다. 또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자이다. 자청비와 모든 관계에서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치의 정수남은 자청비의 입장에서 보면 그녀를 시험하는 첫 번째 갈등의 존재이다. 자청비와 정수남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인연으로 태어나게 되면서 시작된다.¹¹¹⁾ 그만큼 정수남은 자청비와 특별한 인연의 관계로 형성된다.

우선, 정수남은 평범한 인물들을 뛰어넘는 식욕가이다. 왕성한 식욕이 정수남의 기본적인 성격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식욕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으로 정수남이는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대신 형상화하고 있다.

서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이엇인정수남이 이만호민 어찌호리, 절로 죽은 삭달님 오름만이 제겨놓고 멩게
낭자왈 고소웨 삼안 곳불을 살라네 잉경나는 대로 황기 도끼로 췌 가죽 몰 가죽 에

111) 시주할 물건을 싣고 동개남은중절에 원불수룩드리러 가는 중에 서개남백금사중을 만나 꼬임에 넘어가 그곳에 원불수룩을 드리니 동개남은중절대사가 꽤심히 생각하여 김진국 부부에게는 딸을 점지하고 하녀에게는 아들을 점지한다.

염내여 작박ᄃ든 손콍으로 베껴아전 혼 줌 꼬창 불레레 진영 익어시냐 혼 줌, 설어
시냐 혼줌 먹단 보난 쉐 아웁 몰 아웁은 간 곳이 엇어간다 112)

‘소 아홉, 말 아홉을 먹다보니 간 곳 없다’는 정수남이의 식욕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표현한다 그리고 식욕은 자청비에 대한 성욕으로 변하게 된다 식욕과 성욕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으로 정수남이가 자청비에게 가지는 감정은 사랑이 제외된 채 성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수남이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고백이 없이 자청비를 숲으로 유인하여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 손잡고 싶다, 입맞추고 싶다, 허리 안고 싶다고 표현된 정수남이의 욕망은 사랑의 감정에서 시작된 욕망으로 형상화되어 있지 않다 사회적 신분의 차이 등에서 오는 갈등은 표현되지 않고 오로지 육체적인 욕망만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수남이의 성욕은 더 큰 성욕을 이용한 자청비의 재치에 넘어가 굴복하게 된다

그후 정수남이는 자청비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육체적인 생사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즉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의 특별한 두 사람의 인연은 자청비가 세경신으로 좌정이 된 후에도 계속된다 정수남이는 목축의 신이 되어 세경신인 자청비와 함께 세상을 관장하게 된다 따라서 원초적인 욕망의 소유자였던 정수남이는 자청비에 신성한 사랑의 힘으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된 것이다.

나. 인물의 캐릭터화 방안

<세경본풀이>가 문학적으로 재창조 된 사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화책이 있다. 3장에서 밝힌 것을 토대로 보면 그 동안 무속신화가 문학적으로 재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세경본풀이>는 <바리공주>와 같은 무속신화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재창조의 시도가 많지 않았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겨레 옛 이야기’시리즈에서 기획한 <자청비와 문도령>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자청비와 문도령>은 <세경본풀이>의 서사를 거의 그대로 옮기고 있으나 역시 다른 무속신화처럼 신성한 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

112) 현용준 · 현승환, 앞의 책, pp 216-218

지 못하다 이러한 한계는 자청비가 세경신으로 좌정이 되는 모습에서 여신 자청비의 성격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세경본풀이>는 자청비의 성격을 형상화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신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밝힌 자청비만의 유쾌하고 적극적인 자아의 모습은 형상화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신화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문학적 재창조가 되지 못했다

그리스신화의 경우는 신들이 어떤 역할로 인간을 관장하고 있는가와 함께 그 신의 성격이 어떤지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헤라가 질투심이 많은 여성으로 형상화되었다면, 아르미테스는 씩씩하고 주관이 강한 여성으로 형상화되었다 신들의 성격은 신을 인간과 가까운 존재로 각인시킨다 그 신의 존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생동감이 있는 문학이 되기 위한 제반이기도 한다

신들의 모습을 캐릭터화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방안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주인공의 이름은 그 인물의 성격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임에 주목할 수 있다 그 예로 대별왕 소별왕은 형과 아우의 관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두 인물의 인품을 반영한 이름이기도 하다 또 바리공주의 경우도 ‘버려진 공주’라는 의미의 ‘바리’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바리공주가 한을 가진 존재로 그것을 승화시켜 신의 존재가 될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화로 재창조된 <자청비와 문도령>과 서사무가 <세경본풀이>를 비교하여 ‘자청비’란 이름이 주는 성격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김진국대감과 자주부인이 귀한 딸을 낳고 아기의 이름을 짓게 된다.

(ㄱ) 열 달 후, 자주부인은 예쁜 여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중략)

김진국대감은 딸이름을 자청비라고 지었어요 정술데기는 아들 이름을 정수남이라고 했어요. (동화)¹¹³⁾

(ㄴ) 아버지 몸에 흰피, 어머니 몸에 검은 피, 살을 만들고, 뼈를 만들고, 오장육부를 만들고, 아홉달 열달을 채워 인간에 탄생하는 것이 여자 아이인데, 앞이마에는 햇님, 뒷 이마엔 달님, 양 어깨에는 샛별이 오송송히 박힌 듯한 여자 자식이 태어난다 (중략) 대감님이 말을 하 뒤, “자지국 부인님아. 아가씨 이름은 자청하여 태어났으므로 자청비로 이름석자 짓기 어찌합니까?”¹¹⁴⁾

113) 김은하, 『한겨레 옛이야기 3' 자청비와 문도령』, 한겨레신문사, 1999, p 63

114) 현용준·현승환, 앞의 책, p 200

(ㄱ)에서는 자청비의 탄생을 정수남이의 탄생과의 대조를 시켜 훗날 있을 두 사람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청비가 귀한 존재라는 것 외에는 자청비의 성격을 알 수가 없다. 반면, (ㄴ)에서는 자청비의 이름이 ‘자청(自請)하여 태어났다’라 해서 자청비란 이름을 준다고 표현했다 ‘자청했다’는 것은 스스로가 청해서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 되며 부모에 의해서가 아닌 본인의 의지로 태어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즉 평범한 인간과는 다른 비범한 인물임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또한 그녀가 여성이라는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임을 형상화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름을 가진 자청비는 스스로가 자청하여 사랑을 선택하고 스스로가 자청하여 고난을 극복하고 스스로가 자청하여 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두 번째는 주인공이 행하는 과업을 통해 주인공의 성격을 알 수 있다 특히, 과업을 통해서만 인물의 성격뿐 아니라 좌정되어지는 신의 성격도 미루어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동화 등의 문학적인 재창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이본들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인물의 성격을 형상화하는 과업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청비의 경우도 실제적으로는 세경신으로 좌정이 되어 곡물을 관장하고 있다. 이러한 신직은 자청비의 성격과도 깊은 연관이 있게 된다 그 관련성을 앞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문도령의 부모는 자청비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위해 칼날 선 다리를 건너는 과업을 주고 그녀는 통과하게 된다.

(ㄱ) 자청비는 정신이 아득했어요. 칼날 선 다리를 지나는 동안 몇 번씩 이승과 저승을 오갔지요. 마침내 자청비는 칼날 선 다리를 건너 문도령 부모 앞으로가 곱게 질을 울렸어요 (동화)¹¹⁵⁾

(ㄴ) 앞으로 한 자국 뒤로 두 자국, 열 자국을 칼날리 위에 울으로 한 자국 뒤로 두 자국, 열 자국을 칼날 위를 밟아 들어가고 뒤로 열 자국 밟아 나갈 때, 한 발은 땅에 놓고 한 발은 칼날 위에 있을 때에 살짝 발뒤꿈치가 베어진다. 자청비가 땅 밑으로 내려서면 속치맛자락으로 재빨리 쓸었더니 속치마가 더러워진

115) 김은하, 앞의 책, p.111

다 문도령 부모가 달려들어, “이러한 아가씨가 어디 있을까 내 며느리 자격이 넉넉하다 어떤 일로 치맛자락 뒤는 더러워졌느냐?” 자청비가 밑을 하되, “어머님아, 아버님아, 나도 인간에서 증표나 마련하겠습니다” 여자는 열다섯 15세가 넘으면 한 달마다 월경이 오는 법도를 마련함이다 116)

(ㄱ)은 자청비가 칼날 선 다리를 건너 문도령의 부모에게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부분만을 서술했다 그러나 자청비가 칼 날 선 다리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은 며느리로서 인정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도 지상의 평범한 인간이 아닌 신의 존재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상징성은 (ㄴ)에서 자청비가 성인 여성에게 월경이 오는 법도를 마련함으로써 구체화된다 월경은 자청비가 사랑에 여신의 성격을 가진 것과 세경신이라는 신직을 가진 것과는 관련이 있는 법도이다 여성이 15세가 넘으면 월경을 하게 되는 것은 남성과의 정신적·육체적으로 완성된 사랑을 상징한다 또 그 합일의 과정은 여성이 출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여성의 출산 능력은 인간의 생명 순환을 상징하며 자청비가 곡식을 인간에게 가져다 준 것과는 일맥상통하다. 출산과 마찬가지로 곡식은 인간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 자청비는 하늘 나라에 곡식을 인간세상으로 전해주는 세경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ㄱ) 자청비는 하늘나라에 있는 알찬 곡식들을 인간세상에 전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옥황상제를 찾아가 청을 드렸지요. “저희 인간세상에서 짓는 농사는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곳에 있는 곡식들을 인간들에게도 나누어주시면 굶어 죽는 어린아이와 늙은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이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들을 생각하는 네 뜻이 가록하구나. 그렇게 하도록 해라.” 옥황상제는 흔쾌히 자청비의 청을 들어 주었어요. (동화)117)

(ㄴ) “세변란이 났으니 세변란 도원수를 막는 자에게는 땅 한 조각 물 한조각을 주마.” 자청비가 이 말 듣고, 아래 쪽 서천꽃밭 수레명말악심꽃을 꺾어 갖고

116) 현용준·현승환, 앞의 책, p.248

117) 김은하, 앞의 책, p.116.

천자국에 들어가 보니, 아닌게 아니라 세변란이 일어나고 1만명의 군사와 3만명의 군사가 칼을 받고 활을 받으며 싸움을 하고 있더라 멸망꽃을 동서로 뿌렸더니 1만명의 군사가 3만명의 군사가 무성한 삼밭에 늙은 삼이 쓰러지듯 늙은 삼 밭에 건 삼이 쓰러지듯 동서로 쓰러진다 세변란을 막으니 천자왕이 땅 한 조각 물 한조각 내준다 자청비가 천자왕에게 등장할 때, “오곡 열두시만곡이나 내 주십시오” 시만곡을 내주니 문도령을 거느리고 칠월 열나흘날 인간에 내려섰는데, 그때 낸 법으로 7월 열나흘날은 백중이 됩니다 118)

(ㄱ)과 (ㄴ)은 자청비가 세경신으로 좌정되는 과정으로 자청비의 성격을 형상화한데는 그 의미가 매우 달라진다 (ㄱ)은 자청비가 옥황상제에게 청을 올려 인간에게 곡식을 가져다 준 것으로 되어 있다. (ㄴ)에서는 자청비가 목숨을 내걸고 세변란에 나가 승리를 해 얻을 수 있는 대가인 땅과 물을 포기하고 인간에게 가져다 줄 오곡 열두시만곡을 얻고 있다 물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진제로 한 모습은 공통적이기는 하나 그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ㄴ)은 자청비가 인간 세상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인데 반해 (ㄱ)은 너무나 쉽게 곡식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서사에서 인간시절의 자청비의 성격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성격도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하고 그 대가로 곡식을 얻는 자청비의 모습일 것이다 인간시절에는 문도령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용기있게 뛰어 들고 헌신하는 모습이었다면 신이 된 후의 자청비 모습은 인간을 위하여 용기있게 뛰어 들고 헌신하는 모습이 좀 더 타당성 있는 신화의 서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인물을 캐릭터화 하는 방안에는 신들이 주고받는 말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말은 그 인물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치이고 다른 인물과의 관계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무속신화는 구비문학이기 때문에 구송자의 방언으로 그 주인공을 대신하는 말을 실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더욱 실감나는 신의 모습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대조를 하면 다음과 같다

□ 자청비가 정술택이의 손이 하얗게 고운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묻는다. 처음으로 자청비가 여성으로서 외모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118) 현용준 · 현승환, 앞의 책, pp 254-256

(ㄱ) “자네는 손이 어쩔 이렇게 희고 고운가?” (동화)119)

(ㄴ) “너는 어떤 일로 손발이 하얗게 고우냐?”120)

(ㄷ) “너는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손발이 고와지고 있느냐? ” (제주도무가본풀이 사전, 이달춘 구송)

무속신화는 구비문학이다 그만큼 구송자의 방언 또는 말투가 그대로 배어 있는 문학이다. 구송자의 방언은 실제 신화 속 주인공의 성격을 고려한 말투이나 문학적인 재창조에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제주도 방언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씩씩한 자청비의 성격을 드러내는 자청비의 말투는 그대로 옮겨와야 한다고 보여진다 (ㄱ)에서의 ‘고운가’는 자청비를 우아한 여성으로 가다듬은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반면, (ㄴ), (ㄷ)에서 ‘고우냐’의 말투는 자청비의 씩씩한 여장부 느낌이 전달되고 있다

□ 자청비와 문도령이 주천강 근처에서 만나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문도령은 물 한 바가지를 달라고 해 자청비가 수양버들 잎을 훑어 놓는다. 문도령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청비의 말을 듣고서야 깨닫게 된다.

(ㄱ) “물 한 바가지 달라는데 이 무슨 심술이오?” 물을 다 마신 문도령이 바가지를 돌려주며 한 마디 했어요 그러자 자청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도 급하게 마시면 체하는 수가 있습니다. 물에 체하면 약도 없다는데, 천천히 드시라고 일부러 버들잎을 띄워 드렸답니다.” (동화)121)

(ㄴ) 문도령이 말을 하되, “어떤 일로 아가씨 상전님아, 얼굴과 속이 같지 못하여 고운 물에 굶은 티를 넣어 줍니까?”

“도련님아, 한 일은 알고 두 일은 모른 도련님이구나. 급한 길을 가시는 것 같아 목이 마르고 애가 타는 듯 하길래, 물이라 한 것은 목을 놓아 먹다가 물에 체하면 약도 없는 법입니다. 티를 넣어 드리면 티구멍으로 물을 빨아 먹을 것이니 물에 티를 넣어드리겠습니다.” 122)

119) 김은하, 앞의 책, p 66

120) 현용준·현승환, 앞의 책, p.202.

121) 김은하, 앞의 책, p.68

122) 현용준·현승환, 앞의 책, pp 202-204.

(ㄷ) 문도령은 그 물을 받아 먹으면서 “그 애기씨 얼굴은 곱지마는 마음씨는 먼지 같구나” 자청비가 말을 하대, “도련님은 한 일은 알고 두 일은 모르는 도련님이로구나 먼 길에 청춘마를 타고서 급히 달려온 때 물을 받아서 급히 먹으면 물채 걸까 걱정되어서 잇몸으로 죽죽 물을 빨아먹도록 나뭇잎을 훑어 놓았습니다. 갖가지 병에 약이 있어도 물채에는 약이 없습니다.”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이달춘 구송)

(ㄱ)의 대화에서는 물바가지에 잎을 띄운 사실에 대한 이유만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ㄴ)과 (ㄷ)에서는 자청비가 문도령의 모자람을 탓하면서 깨우쳐 주고 있다 ‘한 일은 알면서 두 일은 모른다’고 하면서 문도령을 탓하는 말 속에는 그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돋보인다 문도령이 천상의 남성이고 자청비는 지상의 여성이라는 한계를 뛰어 넘어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임을 형상화 한 말이다 마치, <삼공본풀이>에서 셋째 딸의 존재가 ‘내 복에 산다’라고 말함으로써 형성되는 캐릭터와도 마찬가지로이다 자청비가 처음으로 문도령을 만나 문도령의 모자람을 탓하는 말은 앞으로의 두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자청비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 **목욕 후 문도령은 자청비의 편지를 받고서야 그녀가 여자인 줄 알고 쫓아간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정을 나누게 된다.**

(ㄱ) 문도령은 허둥지둥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자청비가 집에 도착해서 뒤돌아보니 문도령이 정신없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래도 삼 년이나 함께 공부했는데 문도령과 이대로 헤어진다는 것은 너무 아쉽다 싶었습니다 (동화)¹²³⁾

(ㄴ) 먼 올래에 자청비가 서서 보니, 문도령이 엎어지며 자빠지며 오는 것을 보니 가 없어서 자청비가 마주 내려가 말을 하되, “문도령님아, 내가 여자의 몸으로 오 늘까지 도련님 눈을 속였으나 우리 집 먼 올래에 서 있으면, 아버님 어머니께 글공부 잤다 온 인사를 드리두고, 저의 방으로 같이 가서 아픈 다리나 쉬었다가 내일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¹²⁴⁾

(ㄷ) (문도령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자청비는 부모님 앞에 인산을 드리두고 “어머님

123) 김은하, 앞의 책, p 78

124) 현용준 · 현승환, 앞의 책, p 212

아! 한서당의 글벗이 집에 오라서 놀다 가기로 했습니다”(제주도부가본풀이 사전, 이달춘 구송)

(ㄱ)의 자청비 모습은 상황에 이끌리는 모습으로 ‘정에 약한 여성’이란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ㄴ)과 (ㄷ)에 자청비 모습의 공통점은 문도령이 자신을 찾아 올 것을 미리 알고 있는 모습이다 그것은 앞서 단락에서 자청비가 문도령에게 자신이 직접 여자임을 밝힌 모습과도 일관된 적극적인 모습의 자청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돋보이는 위치에 있는 자청비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여자임을 밝힌 것처럼 남·녀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데도 주체가 되어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ㄱ)에서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ㄴ)에서처럼 자청비의 성격을 형상화 할 수 없었다. 자신의 방에서 ‘아픈 다리나 쉬었다가 내일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말속에는 자청비가 문도령을 사모했던 마음과 성숙한 여인으로서 3년 동안 숨겨온 사랑을 풀고 싶은 마음이 형상화되어 있다

봉건주의적 사고관 때문에 문학에서 여성의 모습은 기다림과 선택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형상화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자청비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여성의 모습으로 적극적이고 주관이 강한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자청비의 성격은 그녀가 문도령을 안내하는 역할자가 되도록 하는데 자신의 방에서 쉬었다가라는 표현에서도 확실해 진다.

□ 한방에서 밤을 보낸 후 문도령이 천상으로 다시 떠나게 된다.

(ㄱ) 자청비는 차마 잡은 손을 놓지 못하고, 문도령도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자청비가 아쉬워하며 물었어요 그러나 문도령은 박씨를 하나 주며 말했습니다 (동화)¹²⁵⁾

(ㄴ) 자청비가 말을 하되, “설운, 도련님아, 날이 새게 되었습니다. 설운 도련님아, 어서 행차 때가 되었으니 노각성자부줄로 옥황으로 올라가십시오.” 서로 갈려 설 때 박씨 한방울을 내 주면서, “이 박씨를 심어서 박이 열어 따게 될 때 내가 안 오면 죽은 줄 알라.” “어서 그건 그렇게 하십시오”¹²⁶⁾

125) 김은하, 앞의 책, p.79.

126) 현용준·현승환, 앞의 책, p.214

(ㄱ)의 자청비 모습은 문도령이 천상으로 떠나자 남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피동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ㄴ)의 경우는 이별 앞에서도 의연한 자청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오히려 문도령을 천상으로 보내는 자청비의 모습은 그녀가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을 존재가 아닐 것임을 예견해 준다

또 더 이상 어디로 튈지 모를 천방지축의 자청비 모습이 아니다 문도령과 사랑을 나눈 후의 자청비의 모습은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발전되어 있다 단지 꿈같은 하룻밤으로 만들지 않기 위하여 이별의 아쉬움을 극복하고 천상의 존재로 되돌아가도록 돕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녀가 지상의 존재라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로도 보여진다

□ 정수남이가 문도령과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자청비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모면하기 위해 꾀를 낸다.

(ㄱ) 정수남이가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요 자청비는 살살 달래기로 했어요 (중략) “네가 정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뭐 하지만 여기서 밤을 보내려면 움막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니?” (동화)¹²⁷⁾

(ㄴ) “정수남아, 내 손 만지는 것보다 집에 가서 토시 한짝을 꺼 보라. 더 좋다.”
“내 입 맞추는 것보다 내 눕는 방안의 꿀단지를 혀로 핥아 봐라. 더 달다.”
“내 허리는 안는 것보다 내 눕는 방안의 나 베는 베개를 안아 봐라. 더 좋다.”

“정수남아,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서산에 해가 지고 있으니 오늘 저녁 밤이 나 지 내게 들로 담이나 쌓아 올려 움막이나 짓자.”¹²⁸⁾

(ㄷ) “나 유방 만직올바에랑 나 눕는 방에 가서 보라 은당병이 있느니라. 은당병에 혀를 찌르고 유방 만지는 것보다 더 좋다.”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이 달춘 구송)

육체적인 성의 부분이 노골적으로 표현된 부분으로 (ㄱ)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화이기에 제약이 많이 따르는 부분이다

127) 김은하, 앞의 책, p 89

128) 현용준 · 현승환, 앞의 책, p 231.

대상이 성인까지 확장되는 문학적 재창조물인 경우에 정수남이와 자청비의 관계는 사랑의 여신인 자청비의 캐릭터를 형상화 할 수 있는 중요한 화소가 된다. 자청비의 사랑은 소녀같은 정신적인 사랑도 아니고 감정을 제외시킨 채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고 즐기는 사랑도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대의 사고관에 기대어 볼 때 자청비가 문도령과 혼전에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금애기가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쫓겨나는 것도 그러한 윤리관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자청비와 문도령의 혼전관계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보이는 것은 자청비가 정수남이의 유혹을 뿌리쳤기 때문이다. 정수남이가 자청비에게 가진 사랑은 육체적 욕망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청비가 말하는 사랑은 정신적·육체적 사랑의 결합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자청비의 '사랑'에 대한 윤리관은 (ㄴ)에서 자청비의 말을 통해 보여지고 있다. 점층적으로 커지는 정수남이의 욕망을 자청비는 더 큰 욕망을 끌어들이며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따라서 서술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말은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것이다. 자청비의 경우도 직접 표현한 말속에서 그녀의 의지가 더욱 돋보이게 된다.

무속신화 속의 신들의 모습은 저마다 특성이 있는 모습이다. 우리의 무속신들은 신이기 전에 영웅과도 같은 인물들이기 때문에 더욱 각자의 성격이 강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들은 무엇을 관장하는 신인가에만 주목이 되고 있고 어떤 성격의 신인지는 주목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보편적인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확실한 형상을 가질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신들의 성격을 캐릭터화하는 것은 신화 속에 신들을 생활 속의 신들로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동화는 신들의 성격을 살려내고 있지 못했다. 신들의 성격이 개성적이고 입체적으로 형상화되기보다는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닌 신성한 힘을 발휘하는 무속신화로서의 문학적인 특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각각의 신들만의 성격이 창조되면 그 속에서 신화의 특성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무속 신들의 캐릭터화 방안으로 '신들의 이름', '신들의 과업', '신들의 말'을 검토해 본 것이다.

우선 문학 속에서 주인공들의 이름이 의미를 지니듯이 무속신화 속 신들의 이름에도 짐작되어지는 신들의 성격이 있다. 바리공주가 '버려진 공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청비’가 스스로 자청하여 태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도령은 ‘도령’이란 호칭으로 그의 소심하고 어리숙한 모습이 그대로 형상화되어 있다. 즉 무속 신들의 이름은 신들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신들의 해결해 나가는 과업을 통해서 신들의 성격과 앞으로 좌절하게 될 신직도 알 수 있게 한다. 극복하기 힘든 과업에서 신들은 그 상황에 맞는 의지력과 인내력 등을 발휘하며 극복하게 된다. 무속 신들은 이러한 시련을 이겨내고 신으로 좌절이 된다. 즉 과업에서 필요로 한 의지력과 인내력은 그 인물들의 성격이 되며 신직에 필요한 시험이 된다.

세 번째로 무속신화는 구비문학의 하나이기 때문에 서술적인 표현 방식보다는 말이 살아있는 신화이다. 신들의 과업은 대부분 설명으로 상황을 대신하기보다는 인물들간의 주고받는 대화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래서 구송자들은 신들의 성격을 상상하면서 그 신에 어울리는 말투로 구송을 했다. 그러나 동화에는 기존 관념에서 비롯된 일괄적인 말투로 개성이 살아있지 못했다. 그 예로 자청비는 당금애기, 바리공주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여성 영웅적인 여신임에도 불구하고 정형화된 여성의 말투를 사용했다. 자청비의 씩씩하고 대범한 성격을 반영한 말투이기보다는 사회적인 관습에서 비롯되어지는 말투였다. 그리고 신화 속의 주인공들이 직접 하는 말들에는 다른 신과의 관계성이 담겨져 있다. 자청비가 문도령에게 잎을 띄어 물을 떠 줄 때 ‘도련님아, 한 일은 알고 두 일은 모른 도련님이구나’라는 말속에서 자청비의 성격이 솔직하고 적극적이라는 점이 형상화되어 있다. 또한 문도령과의 관계성까지 형상화되어 있어 앞으로 전개될 서사에서 자청비가 주도적인 인물로 문도령과의 관계에서 주체자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무속 신들은 그만큼 다양한 성격을 가졌고 또 그것을 표현해주는 것이 그들의 말이다. 말은 단순히 신들간의 대화가 아니고 신들의 성격을 반영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5. 결론

신화의 현재적 양상은 어떠한가? 본 논문은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우리만의 신화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되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인간의 삶을 긍정하고 인간과 신의 관계를 수평적인 존재로 바라본 무속신화에서 찾았다. 신과 인간이 완전하게 독립된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닌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무속 신들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에게 주어진 과업을 극복하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때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신이 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무속 신들이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종교적인 힘을 빌릴 수 있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삶의 희망을 얻고 그들의 병을 치유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속신화의 가치는 현대 사회에서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굿을 제의하는 이들과 몇몇의 연구자들의 전유물 속에 있을 뿐 세계로 나아가 대중들과 함께 하는 신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일반인들에게 무속신화의 정체성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서구의 그리스 신화 등이 인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무속신화를 일반인들과 가까운 거리의 신화로 만드는 것은 우리 민족의 특수한 정체성과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각 민족마다 신화가 존재하는 것은 신화 속에서 그들의 삶의 원형을 발견하고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속신화의 신성성과 문학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문학적 재창조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즉 민족적인 특수한 가치관과 보편적인 세계관이 함께 성립되는 신화로 무속신화를 우리의 신화로 세계의 신화로 재창조하는 방안인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2장에서는 무속의례에서 구송되는 무속신화의 현대적 가치에 대한 정체성을 살펴보았다. 현대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무속신화의 문학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우리의 신화로서 우리 민족의 특수한 가치관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삶의 희망까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대적 가치는 무속신화가 지닌 본풀이라는 특수한 서사구조로 인해 가능했다. 무속신화는 신

과 인간의 관계가 다른 민족의 신화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수평적인 신과 인간의 관계이다 수평적인 관계는 우리 민족만의 특수한 가치관의 반영으로 신과 인간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 우리 민족들은 무속신화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투영하고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신화적 가치는 현대 사회에도 종교적 제의가 아닌 새로운 형식의 문학 속에서 그 본질이 그대로 형상화될 수 있다

이러한 현대적 가치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선행된 재창조 작업의 현황을 살펴 보았다 무속신화가 문학적으로 재창조된 사례는 <바리공주>가 동화책과 시집 등으로 재창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양한 무속신화 중에서 상대적으로 <창세신화>, <당금애기>, <세경본풀이>, <차사본풀이> 등의 무속신화는 대중에게 소개되지 못한 신화였다 또한 <바리공주>와 같이 문학적으로 재창조가 된 경우일 지라도 부분적으로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몇 편의 작품을 있을 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화책이 대부분이었다 즉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학물은 찾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지금까지의 재창조자들은 이야기를 따라가는 수준으로 신화로서의 문학적·예술적인 위치가 확립되지 못했다 우리의 신화라는 민족적 자부심과 무속신화라는 특수한 성격이 형상화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충분한 무속신화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무속신화의 이본을 토대로 문학적인 재창조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체적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리스·로마>신화와의 연관된 논의를 통하여 그리스신화가 오늘날도 새롭게 재해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폈다 그 결과 <그리스·로마>신화가 곳곳에 숨겨둔 화소들에 각각의 의미를 두고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었으며 신들을 살아 있는 존재와 같이 형상화했기에 가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비교 논의를 통해서 우리 무속신화만의 특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무속신화가 수평적인 신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본질적인 사유의 문제들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속신화는 죽음, 가족, 사랑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들을 화두로 삼아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상화했고, 이 점은 세계의 보편적 문제와도 같은 문제이다 이러한 무속신화의 특징이 세계의 신화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창세신화>·<바리공주>·<세

경본풀이>를 통하여 문학적 재창조를 위한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무속신화를 어린이 대상의 동화로 재창조한 <한겨레 옛 이야기> 시리즈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았다

우선, <창세신화>에서는 우리 무속신화의 인식체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재구성할 것인가 하는 기본구도를 제시해 볼 수 있었다 세상이 마련된 것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변화로 본 우주관과 신과 인간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본 가치관은 우리 민족의 세계관으로 무속신화 전반의 세계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바리공주>는 그만큼 전지역에 분포된 무속신화로 채록된 이본들이 많다 그만큼 풍부한 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리공주>의 서사 속에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 그대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래서 무속신화의 문학적 재창조를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 문학적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서사적 구성을 살펴보았다 주인공 바리공주가 죽음을 관장하는 오구신으로 좌정되는 무속신화이므로 이점과 연결짓는 화소를 선별하고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신화 속 인물의 캐릭터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상이다 인물을 캐릭터화 하는 작업은 상징적인 의미를 인물에게 부여하는 것이 된다 즉 성격이 살아있는 신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속신화를 대중에게 각인 시키게 된다 마치 질투의 여신 ‘헤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같은 수식어들이 신들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처럼 무속신들도 그들을 형상화할 수 있는 성격을 창조하는 방안인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대중에게 좀더 신화를 진실한 이야기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힘을 실어 준다 무속 신들도 각각 개성있는 성격을 구체화 할 수 있을 때 살아있는 존재로서 대중에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각된 신들의 성격은 신직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진실한 이야기뿐 아니라 신성한 이야기로서의 가치도 함께 실현된다. 따라서 다양한 무속신화 중에서 <창세신화>, <바리공주>, <세경본풀이> 세 편을 통해 무속신화의 문학적 재창조를 위한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나아가 세 편의 무속신화에 대한 연구는 다른 무속신화의 문학적 재창조를 위한 방안의 연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무속신화의 재창조 방향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기획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 이 연구를 시작으로 쉽게 다가가는 우리 신화 만들기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자료편 >

김태곤, 『한국무가집 I』, 집문당, 1971

——, 『한국무가집 II』, 집문당, 1971

——, 『한국무가집 III』, 집문당, 1978.

김진영·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I, II』, 민속원, 1997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향토문화사, 1930

서대석·박경신, 『서사무가 I』, 『한국고전문학전집』 30집,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6

신동훈·정출현 기획구성, 『한겨레 옛이야기』, 1-10, 한겨레신문사, 1999-2000

임석재·장주근, 『관북지방 무가』, 문화재관리국, 1965

——, 『관서지방 무가』, 문화재관리국, 1966

赤松智城, 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 상·하』, 동문선, 1991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 한국고전문학전집 29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현용준, 『제주도 무속 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76

< 단행본 및 논저편 >

고대경, 『신들의 고향』, 증명, 1977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 구성의 특질」, 『한국민속학』 31집, 한국민속학회, 1999.

강등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강진옥, 「한국 민속에 나타난 여성상의 변모양상」, 『한국민속학』 27집, 1995

강은혜, 「바리공주 형성의 신화 심리학적 두 원리」, 『계명어문학』 1집, 계명

- 어문학회, 1984
- , 「한국 신화와 여성주의 문학론」, 『한국학 논집』 17집, 1990
- 김수중, 「한국신화에 나타난 인간관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1993.
- 김열규, 『한국의 신화』, 일조각, 1985
- 김열규 외, 『한국의 무속문화』, 박이정, 1991
- 김영숙, 「여성중심시각에서 본 바리공주」, 『페미니즘문학론』, 1996
- 김인희 외, 『한국무속의 종합적고찰』,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82
- 김준기, 「신모신화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1
- , 『황천무가연구』, 창우사, 1966
- 김현선, 『한국의 창세 신화』, 길벗, 1994
- 김화경, 「세경본풀이의 신화학적고찰」, 『한국학보』 28집, 1982
- 김환희, 「설화와 전래동화의 장르적 경계선」, 『동화와 번역』,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 연구소, 2001
- 민속학회, 『한국 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1994
- 박경신, 「무가의 작시원리에 대한 현장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 「한국무가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 5집, 한국구비문학회, 1998
- 박정혜 외, 『신화의 세계』,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0
- 박종성, 『한국창세서사시연구』, 태학사, 1999
- , 「무속서사시의 새로운 관점」, 『구비문학』 1집, 한국구비문학회, 1995
- 박현숙, 「무속신화 <바리공주>의 현대적 재창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서경림, 「제주 신화와 여성의 위상.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제주대법과정 책』 4집,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1998.
-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학』 4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1980.
- , 「한국 신화와 만주족 신화의 비교연구」, 『고전문학연구』 7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2.
- ,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 , 『한국 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8
- 서유원, 『중국창세신화』, 아세아문화사, 1988.
- 신동훈, 「삶, 구비문학, 구비문학연구」, 『구비문학』 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994
- , 「경기지역 성주풀이 무가의 신화적 성격」, 『우산이인섭교수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95
- 신용철, 「M 엘리아데의 신화 연구」, 『송실대논문』 16집, 1998
- 안진태, 『신화학 강의』, 열린책들, 2001
- 양영수, 「한국 신화와 그리스 신화의 비교연구」, 『제주도 연구』 8집, 1990
- , 「제주신화의 재해석을 위한 시론」, 『제주대학교 백록논총』 제 1차, 1999
- , 「제주 신화에 나타난 공존과 사랑의 원리」, 『제주도 연구』 제 14집, 1997
- , 「제주와 중국 및 그리스 신화의 비교」, 『제주대동아시아 연구논총』 11집, 2000.
- 윤교임, 「여성 영웅 신화 연구 초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에 대한 문화기호학적해석」,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경하, 「<바리공주>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특징에 관한 비교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선근, 「서사무가에 나타난 저승인식과 그 교육적 가치」,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 11집, 1990
- , 「백중의 기원과 성격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 민속학』 25집, 1993.
- 이윤기,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웅진닷컴, 2001
- 이지영, 「한국신화의 신격유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이현숙, 「<바리공주>무가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임명숙, 「페미니즘 시각으로 본 세경본풀이 연구」, 『돈암어문학』 13집, 돈암어문학회, 2000

- 임석재, 「우리나라의 천지개벽 신화」, 『경학 김영돈박사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77
-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 장석환, 「바리공주 무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장영란, 「그리스 신화와 철학에 나타난 네 요소에 관한 철학적 상상력의 원천(I)」, 『한국 서양고전학』, 한국 서양고전학회, 1999
- 장장식, 「신화를 통해 본 여성의 임무와 그 의미」, 『민속학연구』 3집, 1996
-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2000.
-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동북아 샤머니즘 문화』, 소망출판, 2000
- 전영숙, 「인물 분석을 통한 <바리공주>의 재창조 방향 연구」, 『겨레어문학』 27집, 겨레어문학회, 2001.
- 좌혜경, 「자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한국민속학』 30집, 한국민속학회, 1998
- 천혜숙,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최길성, 「<바리공주>의 신화의 구조 분석」, 『한국 무속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 최인학, 『구전설화연구』, 새문사, 1994
-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민속원, 1998
- 황루시, 『우리 무당 이야기』, 풀빛, 2000.
- , 『한국의 굿』 6권, 열화당, 1985
-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번역서>

- 대림태양, 『신화학입문』, 새문사, 1996.
- 미르세아 엘리아드, 『신화와 현실』, 성균관대출판부, 1985
- , 『샤머니즘』, 까치, 1992.
- 조셉 캠벨·빌 모이어스, 『신화의 힘』, 고려원, 1988.
- 위엔커, 『중국신화전설1·2』, 민음사, 1995
- 프로이트, 『꿈의 해석 상·하』, 1999. 열린책들.
- 프레이저, 『황금가지』, 을유문화사, 1989

ABSTRACT

A Study on the Course of Literary Re-creation in Shamanism Mythology

Oh, Jung Mi

Mankind have their own mythological story to suggest the way how to advance and to show the style of life for each race. Mythology which contains a different story has formed universally one's common values as well as the special and unique character of a race. So mythology has been thought to be not only truthful but also honorable, and it has been considered to hold sacred. In addition, mythology plays an important role in culture.

Similarly, a mythology exists in Korean culture. It is found in a shamanism mythology accompanied by performing the 'Gut', a shape of Korean exorcism. In shamanism mythology, there are various stories of gods related with a man in life.

In Korean culture, shamanism mythology has not been properly estimated until nowadays.

On that, I intended to study the way how to re-create shamanism mythology by modernizing shamanism mythology with maintaining the essence of a literature. A world view and a one's value in shamanism mythology have been disregarded, because shamanism mythology has been confined in the formal style of a Korean exorcism. People who also live in cities or near urban areas have hardly a chance to meet and see a Korean exorcism that is told 'Gut'. For the almost people, the 'Gut' is thought to be only religious rituals, so that it becomes a culture that has been forgotten little by little.

To overcome this restriction, a literary re-creation emerging from the type of 'Gut' is demanded in a shamanism mythology. Greek and Rome mythology have been loved for a long time. Because Greek and Rome mythology occupied the position, the place of a literature. So I intend to re-create our shamanism mythology to public literatures on the basis of a literature. Accordingly this paper contains how to re-create shamanism mythology maintaining the essence of a literature for every one from children to adults.

First of all, in the numerous shamanism mythologies I selected three shamanism mythologies to re-create concretely.

Those mythologies are <The creation of the world mythology>, <Bari princess> and <Sekyungbonpulee>. First, <The creation of the world mythology> is the most original form of mythology to configure an organization. The main plot of that mythology tells how can this world be made and how can all human be made in the beginning of the world. Especially that mythology concretely figure the relation between gods and men. And our own uniqu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gods can be easily disclosed.

While other mythologies have perpendicular connection, Korean shamanism mythologies show horizontal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gods. It can also allow their relationship to visit time and space without interruption. Likewise the process of 'Bonpulee' that means interpretation of the origin also shows such horizontal relationship. This relationship is due to the birth of god. Gods of shamanism were not gods at first time but merely human. Through overcoming hardship, they could revive as gods.

Second, I discussed the logic of a narrative organization in <Bari princess> which also shows horizontal relation. After I selected a valuable and important accident among various stories which are different per each area, I made a plan to reveal mythological meaning. That is to say, the logic of a narrative organization literarily means to remake, discard, and attach additional accidents to main event. But it is only possible on condition that shamanism mythology

doesn't lost the character of true nature.

At the last, I have contemplated that <Sekyungbonpulee> is the study that breathes into gods of mythology. In other words, it is the way to characterize a god in mythology. In this process every gods in shamanism mythology become to have their own characters according to their features. As they have their own colors, people may feel they are friendly beings. Moreover people can obviously remember the contents of shamanism mythology because of their intimacy.

Therefore, in this paper, I attempt to re-create considerable shamanism mythology which suggest a world view that hold together and a special and unique value of our race.